

선교사의 위기관리 - 재난



이현모 원장 (세계선교훈련원 원장)

● 지난 수 년 동안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라는 책으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유발 하라리 교수는 오랫동안 인류를 위협했던 3가지 위기는 기아와 전염병, 그리고 전쟁이라고 지적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인 1900년에 인간들의 평균 기대수명은 40세가 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실제 이 당시도 인간들의 평균 자연수명은 70-80세였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평균적으로 자연수명의 절반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이유는 기아와 전염병, 전쟁에 희생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라리 교수는 20세기 후반부에 들어와서 인류는 이 3가지 위협에서 벗어난 첫 세대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실제 아직도 인류는 이 위협에서 온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다. 최근 전 세계를 위협하고 4월 중순 현재 1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망자를 내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이 세상은 위험한 세상이다.

국내의 익숙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위기는 예기치 않게 닥쳐오지만, 모든 것이 낯선 타문화 환경에서 사역하고 생활하는 선교사들에게는 이런 위기가 더 위험한 문제이다.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위기상황을 경험하지만 불안한 환경에 처해있는 타문화권 선교사들에게 위기관리가 더 중요한 주제로 부상하는 이유이다. 선교사들이 당하는 위기는 아주 다양하다. 작게는 교통사고, 도난, 강도, 폭행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자연재해(지진, 태풍, 화산폭발, 홍수 등)와 전쟁, 혁명, 폭동, 테러, 납치, 인질 사태 등의 사회적 불안 상황, 그리고 전염병의 창궐, 개인적 질병, 성폭행 등 극히 다양하다.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한 선교사라도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당황하고 대응에 실패하기 쉽다. 더 나아가서 선교사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을 구할 뿐 아니라 사역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미리 예방책을 가지고 있거나, 정해져 있는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방책과 대응 매뉴얼의 대부분은 선배 선교사들의 경험과 시행착오에서 배우는 것들이다. 코로나 19 사태를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책과 우리의 경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본 위기 관리 매뉴얼이 있지만 이번의 세계적 전염병의 대유행 상황과 같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경험을 모아 보아야 할 때이다. 우리 침례교 선교사들은 이미 상당한 위기 상황들을 경험해 보았다. 2003년 중국과 동남아를 휩쓸었던 사스(SARS) 사태의 위기를 여러 선교사들이 경험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핵발전소 폭발의 위기도 여러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경험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에서 지진과 사이클론, 홍수 등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다. 또한 단순히 위기를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위기 상황을 경험한 선교사들에게는 적절한 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공해야 할 필요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이번 미시오 데이에서는 특집으로 선교사들의 재난 상황에서의 경험과 선교사들에 대한 위기대응 디브리핑(CRD) 방안 등의 글을 모아보았다. 현장 선교사들과 선교사를 후원 관리하는 교회 실무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선교지 재난의 종류와 대처

| 한국위기관리재단
김진대 사무총장

1. 선교지의 위기

1. 위험한 사회

현대사회는 도시화·세계화에 따른 인구의 대이동, ‘지구 온난화’라는 기후변화로 기상이변과 대형 자연재해의 빈발, 종교 간의 첨예한 충돌, 테러의 개인화, 과학기술 발달과 산업 고도화·복합화 현상으로 인한 대형 재난사고 증가, 금융 위기로 인한 세계적 경제 불안, 세력을 얻어가는 민족주의·국수주의, 마음의 황폐화로 인한 인간성 상실 현상 등으로 인하여 이미 위험사회로 진입하였다.

특히 작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19 확산사태로 전 세계는 미증유의 혼돈과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국가별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 통행금지와 이동 제한, 입국금지와 항공편 취소, 식량 부족과 경제적인 위기, 현장의 선교사역 중지와 체류 비자 문제, 사회 불안정과 혐오범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선교사들의 일시 귀국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선교사역 자체가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제 현대를 사는 개인이나 어떠한 조직(가정, 교회, 기업), 정부라도 위기로부터 자유로



울 수 없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보다 한 수 위이며 동경의 대상이었던 미국과 구미 선진국들의 코로나 대처 모습은 그들의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내었다. 이처럼 위기상황의 발생을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준비한 개인과 조직 및 국가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며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으나,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그 피해가 극대화되어 개인과 조직 및 국가의 생존마저도 위협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 무장이 필요한 이유이다.

어려운 우리의 이웃을 도우려는 지역교회 해외 단기봉사 활동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선교사들의 활동도 이러한 거센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다. 물론 복음 전파에 고난과 희생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한 청지기로서도 최선의 준비를 다하여야 한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경계하라(마10:16-17).”

2. 위험(Risk)의 어원

아랍어 ‘risq’는 ‘신이 당신에게 준 것으로 거기서 이윤을 남기는 것’을 의미하고, 라틴어 동의어인 ‘ricicum’은 ‘절벽 근처를 항해하는 중세시대 선원에게 주어진 도전’을 나타내며, 동의어인 프랑스어 ‘risque’는 ‘모험과 결과적인 소득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이다. 한편 한자어 ‘危機’(위기)는 위에서 언급한 의미들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위험과 기회’의 줄임 말이다. 비슷한 용어인 재난은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을, 그리고 재해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를 의미한다.

3. 한국 선교사 위기사례

매스컴을 통하여 매일매일 지구상에서 수많은 위기사건들이 빈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선교사들에게도 수많은 위기사례들이 있다. 작은 질병에서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질병의 고통가운데 놓여있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선교사와 지역교회를 위한 위기사례연구 I, II)

교통사고, 항공기 추락, 강도 피살, 독극물 피살, 구금과 억류, 절도 피해, 익사사고, 추방과 긴급철수, 입국 거절, 전염병에 의한 철수, MK 자살, 선교사 자살, 성폭행, 부부 갈등과 이혼, 관계문제, 팀 내 갈등과 분열, 고립과 단절, 외로움과 고독, 탈진, 우울증, 사역의 부진, 언어소통 문제, 각종 중독 증상들, 후원 중단, 자녀교육, 중도 탈락, 도덕적

실패, 스트레스, Transition 문제, 고령화와 은퇴, 은퇴 후 노후대책 등등.

선교사 허업에서부터 사역 과정에서, 은퇴와 그 이후의 인생 여정 곳곳에 숨겨져 있던 수많은 위기와 도전들을 직면하는 것이 현실이다. 처음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는 젊음과 믿음이면 다 될 것 같았고, 기도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막상 오랜 선교사역 후 뒤를 돌아보니 놓친 부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식한다. 위기라는 단어가 점점 마음에 와 닿게 된다.

4. 위기관리 이해

가. 위기관리의 목적

위기관리는 발생한 위기에 대한 상황 대응이 주목적이 아니라, ①위기상황 발생 전에 ‘위기의 예방’이 최우선 목표이다. 불행하게도 모든 위기를 예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일단 발생한 위기에서 ②인적·물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관리·통제하는 단계가 필요하고, ③위기상황 종료 후 위기사태에 노출된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심리적인 회복’을 도움으로 정상적인 사역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멤버케어 활동을 포함한다.

나. 위기관리의 원리

위기(위협)란 항상 있는 것이다. 그것들을 결코 완전하게 제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기(위협)는 언제나 상당한 정도로 축소 가능한데, 대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을 의미한다. “현재 당신이 위기상황에 있지 않다면, 당신은 위기 전 단계에 위치해 있는 것이다.”

다. 위기관리의 출발

위험 인식은 위기관리의 출발점이 된다. 사람이 의식할 수 없는 것을 준비할 수는 없다. 위험 인식의 정도는 사람의 성품, 지식의 유무, 과거 경험, 후천적인 훈련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위기관리교육은 위험을 볼 수 있도록 돕고, 발견한 위험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하나의 의식개혁이다.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이다.”

II. 선교단체의 위기관리

1. 위기관리와 성경

가. 성경의 태도

성경은 제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경우(행14:19, 고후1:8-9)도, 피할 길을 허락하는 경우(마10:23, 행9:23-25)도 있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마10:16)”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이 요구되고 있다.



나. 믿음의 요소

- 세상에는 확고한 보장이 없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주권에 의해 통치된다.
- 궁극적인 보호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고백한다.

다. 청지기의 책무

- 단체가 위기를 막지는 못하지만, 대비하는 것은 믿음과 상치되지 않는다.
- 위기상황 속에서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 단체는 위기관리 교육훈련으로 위기상황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비해야 한다.

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일시 귀국선교사에 대한 입장

코로나 유사증상이 있는데도 계속 선교지에 머물러야 할지, 현지에서 검사를 받지 않고 일단 국내에 귀국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선교사들 중 일시 귀국하고 싶어도, 국내 파송교회와 선교단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나온 것'으로 볼까봐 속앓이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위기관리 측면에서 볼 때, KOICA 단위이나 국제개발 NGO 단체들도 이미 현장을 철수했고 유학생, 주재원, 재외 교민도 귀국하는 상황에서, 선교사니까 가급적 현장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가족 보호 본능, 미래의 불확실성, 최악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송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신앙과 이성의 양 측면에서 선교사의 현지 잔류를 말하는 목소리도, 한편으로는 선교사가 자유롭게 귀국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견고한 믿음의 바탕 위에 바른 이성적 판단을 통하여 가급적 중간영역인 신앙생활의 회색지대를 점차 축소시켜 나가는 것이 위기관리 사역이라고 할 때, 선교사들이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잔류와 귀국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2. 선교단체의 위기관리시스템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처리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닥쳐오기에 냉정하게 처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따라서 위기상황을 통제하고 대처할 모든 영역에 대한 정책과 지침을 미리 준비하고, 관련자들이 교육훈련을 통하여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실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단체는 위기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가. 위기관리 체계

- 위기상황에서 선교사의 '생명'과 '안전'을 사역의 필요보다 최우선 순위에 둔다.
- '위기관리팀'을 사전 구성하고, 역할과 권한에 대해 분명한 운영체계를 세운다.

- 위기에 대비해 위기관리정책과 지침서를 준비하고 구성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 ‘비상계획’을 필드 별로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완한다.

나. 위기관리팀 구성

위기관리팀(CMT) : 본부와 필드에서 함께 위기 상황을 처리하는 팀으로서 팀장, 부팀장, 정보 담당자, 지원 담당자, 현지 담당관, 대변인, 변호사, 의료/멤버 케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다.

다. 위기관리 표준정책

정책은 위기 발생 시 단체가 위기 상황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은 단체의 핵심가치를 반영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모든 구성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위기 예측(Risk assessment)
- 위기관리 조직(Crisis Management Function)
- 비상 계획(Contingency Plan)
- 보고 체계(Information Flow)
- 교육 훈련(Education & Training)
- 위기 기금과 비상금(Crisis & Emergency Fund)
- 철수(Evacuation)
- 납치와 인질(Hostage)
- 정보 관리(Information Management)
- 멤버 케어(Member Care)
- 위기 후 평가와 위기 학습(Post Crisis Evaluation & Tracking)

라. 위기관리 절차

절차는 위기 상황을 맞아 위기의 관리와 종결을 위해 단체, 특히 위기관리팀이 그 위기상황을 어떻게 다루고 처리할지를 얻어진 경험에 의해 정리된 순서로서, 위기해결을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위기관리 절차는 아래의 순서와 같다.

- 위기의 인정과 승인(Recognition and Acknowledgement)
- 위기의 봉쇄(Containing)
- 위기의 분리(Isolating)
- 위기의 분석(Assessing)
- 대응계획의 선택(Planning the Response)
- 계획의 실행(Implementing the Plan)

- 계획의 평가와 수정(Evaluate and Modify)
- 위기의 종결과 후속 평가(Closing)

마. 필드 팀의 비상계획(CP)

비상계획(CP)은 언제나 필드의 현재적인 위기에측(Risk Assessment)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예 : 비상시 긴급철수 계획, 사역자 사망, 부상 시 대처방안 등). 또한 비상계획은 매우 역동적인 행동 지침을 규정한 문서이므로, 필드 상황에 따라 수시로 수정 보완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많이 반영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건전한 상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각 필드 팀은 가능하면 매년, 적어도 2년에 1회 특정한 날을 정해서 새로운 위기에측에 따른 비상계획의 수립, 혹은 기존 계획의 검토와 수정보완을 위해 관련 사역자들이 협의의를 가져야 한다. 또한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비상계획의 모의훈련을 실행해야 한다. (기타 추가 지침서 [위기관리 평가 지침] 참조)

3. 위기(재난)관리 단계

- 가. 대비/예방(Preparedness)
- 나. 예측과 조기경보(Prediction)
- 다. 대응(Responding)
- 라. 회복/복구(Recovery)

III.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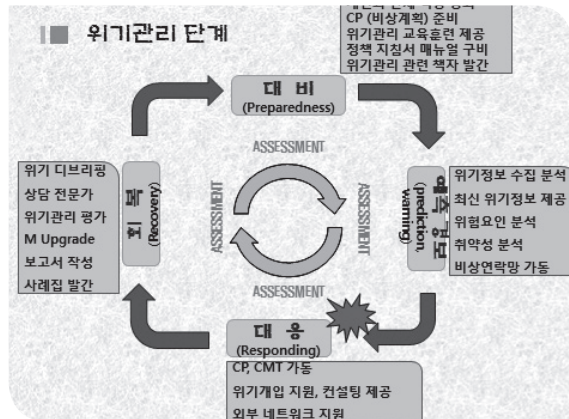
1. 재해 재난의 유형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낙뢰, 지진, 해일(쓰나미), 화산폭발, 한파, 폭염, 황사, 화재, 산불, 폭발, 안전사고, 환경오염, 전염병(말라리아, 뎅기열병, 신종 인플루엔자, 에볼라, 코로나 19 등) 이 있다.

2. 태풍 대비 행동요령

가. 태풍 예보 시

- 하수구나 집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곳을 뚫을 것.
-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숙지할 것.
-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을 미리 준비할 것.



-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을 단단히 고정할 것.

나. 태풍의 영향권에 있을 때

-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서 대피할 것
-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므로 가까이 가지 말 것.
-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 것.
-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말 것.
- 천둥 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할 것.
- 간판, 창문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해 둘 것.
-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경우 즉시 신고할 것.
- 집안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가둘 것.
-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말 것.
- 대피할 때에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둘 것.
-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을 잘 알아둘 것.

다. 태풍이 지나간 후

- 침수된 집안은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니 환기시킨 후 들어갈 것.
- 전기, 가스, 수도시설은 손대지 말고 전문 업체에 연락하여 사용할 것.
- 제방이 붕괴될 수 있으니 제방 근처에 가지 말 것.
-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바닥에 떨어진 전선 근처에 가지 말 것.

3. 홍수 대비 행동요령

-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대피 준비를 하고, 물이 집안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나 튜브 등을 준비해 둘 것.
-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라디오, TV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변화를 확인할 것.
-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말 것.
- 모르는 지역, 무릎 위로 물이 흐르는 지역을 지나가거나 자동차를 타지 말 것.
-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갈 것.
- 연못, 구덩이 등에 대한 안전표지판을 잘 살펴볼 것.
- 우물이 오염될 수 있으니 마실 물을 미리 준비해 둘 것.
-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할 경우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할 것.
- TV와 라디오를 주의 깊게 들을 것.
- 하천의 물이 갑자기 많아지는지 주의 깊게 관찰할 것.

- 만약 독의 물이 넘치고 하수도로 물이 나온다면 다음의 사항을 준비할 것.
 -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마당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집안으로 옮길 것.
 -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글 것.
 - 상수도의 오염에 대비하여 욕조에 물을 받아 둘 것.
- 홍수에 의하여 밀려온 물에 가까이 가지 말 것.
- 흐르는 물에 들어가지 말 것.
- 기름, 오수로 오염되었을 수 있으므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 멀리 떨어질 것.
- 흐르는 물에서는 약 15cm 깊이의 물에도 휩쓸려 갈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 홍수가 지나간 지역은 도로가 약화되어 무너질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 재난 발생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말 것.
-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은 경우, 비누를 이용하여 깨끗이 씻을 것.

4. 호우 대비 행동요령

-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 상황을 잘 알아들 것.
- 주택의 하수구와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할 것.
-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를 준비할 것.
-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을 미리 준비할 것.
- 신호등, 가로등,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말 것.
-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말 것.
- 공사장 근처는 가지 말 것.
- 천둥, 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할 것.
-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물건은 안전한 장소로 옮길 것.
-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할 것.
- 건물의 출입문이나 창문을 닫아둘 것.
- 물에 잠긴 도로를 지나가지 말 것.
- 대피할 경우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둘 것.

5. 강풍 대비 행동요령

가. 강풍에 대비하기

- 문, 창문을 닫고 집 안에 머무를 것.
- 유리 창문 파손 방지를 위해 젖은 신문지, 비닐 또는 테이프를 창문에 붙일 것.

- 해안지역에서는 바닷가로 가지 말 것.
- 라디오나 TV의 기상정보를 주의 깊게 들을 것.
- 날아갈 수 있는 물건들을 모두 집 안으로 들여놓을 것.

나. 강풍이 몰아칠 때

- 지붕 위나 바깥에서 작업하지 말 것.
- 나무 밑으로 피하지 말 것.
- 바닷가 근처로 가지 말 것.
- 강풍이 지나간 후 땅바닥에 떨어진 전깃줄에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 것.
- 외출을 삼가고 자동차를 타고 갈 때에는 속도를 줄일 것.

6. 낙뢰 대비 행동요령

가. 낙뢰에 대비하기

- 야외에서 일, 등산, 골프 등을 할 경우 낙뢰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할 것.
- 건물 안, 자동차 안, 움푹 파인 곳이나 동굴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것.
- 낚싯대나 골프채 등을 이용하는 야외운동은 매우 위험하므로 즉시 중단할 것.
- 낙뢰가 예상될 때는 우산보다는 비옷을 준비할 것.

나. 낙뢰가 칠 때

- TV, 라디오 등을 통하여 낙뢰 정보를 파악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할 것.
- TV 안테나, 전선을 따라 전류가 흐를 수 있으므로 전자제품 취급에 주의할 것.
- 가옥 내에서는 전화기나 전기제품 등의 플러그를 빼어두고, 전등이나 전기제품으로부터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창문을 모두 닫고 감전 우려가 있는 샤워, 설거지 등을 하지 말 것.
- 금속성 건축자재 등으로부터 1m 이상 거리를 유지할 것.
- 출입문이나 창문에서 거리를 유지할 것.

다. 산에서

- 산은 낙뢰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가능한 등산을 삼갈 것.
- 낙뢰는 높은 곳에 떨어지므로 정상부에서는 신속히 낮은 지대로 이동할 것.
- 번개 본 후 30초 이내에 천둥소리를 들었다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것.
- 낙뢰 발생 시 몸을 낮추고 물 없는 움푹 파인 곳, 계곡, 동굴 안으로 대피할 것.
- 정상부 암벽 위나 키 큰 나무 밑은 위험하므로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것.
-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같이 긴 물건은 땅에 뉘어 놓고, 몸에서 떨어뜨려 놓을 것.

- 야영 중일 때에는 침낭, 이불을 깔고 앉아 웅크리고 있을 것.
-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서 돌풍이 몰아칠 때, 특히 바람이 많은 산골짜기 위의 정상 등지에서는 낙뢰 위험이 크므로 신속히 대피할 것.
- 마지막 번개 및 천둥 후 30분 정도까지는 안전한 장소에서 기다릴 것.

라. 야외에서

- 평지에서 낙뢰가 칠 때는 몸을 낮게 하고 물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할 것.
- 평지에 있는 키 큰 나무나 전봇대는 낙뢰가 칠 가능성이 크므로 피할 것.
- 골프채, 삽, 팽이 등 농기구, 낚시대 등을 몸에서 떨어뜨리고 몸을 낮출 것.
- 대피 때에는 지면에서 10cm 정도 떨어지도록 절연체 위에 있는 것이 좋다.
- 낙뢰는 산골짜기나 강줄기를 따라 이동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하천 주변에서의 야외 활동은 삼갈 것.
- 자동차의 경우 차를 세우고 라디오 안테나를 내린 채 차 안에 그대로 머물 것.
- 낙뢰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의식 유무를 확인할 것.
- 의식이 없으면 즉시 호흡과 맥박 여부를 확인하고, 호흡이 멎어 있을 때에는 인공 호흡을, 맥박도 멎어 있으면 인공호흡과 함께 심장 마사지를 한다. 또한 구조대 또는 인근병원에 긴급 연락하고, 구조요원이 올 때까지 응급조치를 하고 피해자의 체온을 유지할 것.
- 감전 후 대부분의 환자가 전신 피로감을 호소하므로,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가장 편한 자세로 안정케 할 것.
- 환자가 흥분하거나 떠는 경우에는 말을 걸든지 침착하게 할 것.
- 의사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서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절대로 단념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인공호흡, 심장마사지, 지혈 등의 처치를 계속 할 것.
- 환자의 의식이 분명해 보이더라도, 감전으로 인해 몸 안쪽 깊숙이까지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빨리 병원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것.

7. 지진 대비 행동요령

가. 집안에서 지진을 느낄 경우

- 지진 발생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이므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먼저 생각할 것.
- 우선 튼튼한 테이블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꼭 잡고 몸을 피할 것.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 불이 났을 때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끌 것.
- 지진 발생 시 소방차에 의한 화재진압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 개개인의 노력에 따라 화재 피해를 줄일 것.
- 평소에 작은 지진이라도 불을 끄는 습관을 익힐 것.
- 가족은 물론 이웃사람들과도 협력해서 초기 소화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서둘러서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 것(집 밖은 위험이 가득, 먼저 안전을 확인).
- 최근 건축된 건물은 내진설계를 했기 때문에 무너질 우려는 적다고 생각할 것.
- 진동 중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 간판 등이 떨어지므로 위험하다.
- 블록 담, 자동판매기 등 고정되지 않은 물건 등에 가까이 가지 말 것.
-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할 것(비상 시의 대피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둬서).
- 만일 간헐 사태를 대비해서 대피방법에 관해 미리 준비해 둘 것.

나. 집 밖에서 지진을 느낄 경우

- 위험물로부터 몸을 피하고 손이나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할 것.
- 땅이 크게 흔들리고 서 있을 수 없게 되면 무엇인가 기대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작용한다. 가까이 있는 대문기둥이나 담이 우선 그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 언뜻 보기에는 튼튼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하다.
- 과거 대지진 시 블록 담이나 대문기둥이 무너져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므로 블록 담이나 대문 기둥 등에 가까이 가지 말 것.
- 번화가나 빌딩가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유리창이나 간판 등의 낙하물이다.
- 자동판매기 등 고정되지 않은 물건 등도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심할 것. 빌딩가 등에 있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다.

다. 엘리베이터에서 지진을 느낄 경우

- 지진이나 화재 발생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 것.
-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는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린 후 대피할 것.
- 만일 갇혔을 때는 인터폰으로 구조를 요청할 것.

라. 자동차 운전 시 지진을 느낄 경우

- 지진이 발생하면 자동차의 타이어가 구멍 난 듯한 상태가 되어 핸들이 불안정해지면서 제대로 운전을 못 하게 된다. 충분히 주의를 하면서 교차로를 피해서 길 오른쪽에 정차시킬 것.
- 대피하는 사람들,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 중앙부분을 비워 둘 것.

- 도심에서는 거의 모든 도로가 전면 통행금지 된다. 자동차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고 부근에 경찰관이 있으면 지시에 따라서 행동할 것.
-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때는 화재 발생 시에 차안에 불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창문은 닫고, 자동차 키를 꽂아 둔 채로, 문을 잠그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피신할 것.

8. 쓰나미 대비 행동요령

- 지진해일은 물이 빠지는 것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이 때 항만 바닥이 드러나기도 한다.
- 지진해일은 일반적으로 여러 번 도달하는데 제 1파보다 2, 3파의 크기가 더 큰 경우도 있고, 지진해일에 의한 해면의 진동은 10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한다.
- 지진해일 내습 속도는 사람의 움직임보다 빠르고, 그 힘이 강력하여 약 30cm 정도의 해일 파고라도 성인이 걷기 어려우며, 약 1m 정도의 해일이라면 건물이 파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 해안가의 선박 등 다른 물건들이 지진해일에 의해 육지로 운반되어 주택에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물체들이 유류 탱크 등에 충돌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
- 지진해일은 바다로 통해 있는 하천을 따라 역상하기도 한다.
- 격심한 지면진동을 느끼면 가까운 곳에서 큰 지진이 발생한 것이므로 해안지역의 주민은 즉시 높은 지대로 대피한다(해안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은 수 분 이내에 해안으로 밀려오므로 지진경보를 듣고 대비할 여유가 없다).
- 지진해일은 약 10분 간격으로 반복되며 제 3파나 제 4파(약 30분)에서 최대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상태가 약 3~4시간 지속한 후 점차 약화하면서 하루 정도 지속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지진 해일시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해일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항구 밖에서 대기하며,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 항내의 선박도 먼 바다로 대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 지진해일 특보가 발표되면 수영, 낚시, 야영 등을 즉시 중지한다.
- 해안에서 먼 거리에 발생한 지진해일에 대해서는 기상청이 해일 특보를 사전에 발표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대피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대피하거나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다.

9. 화산폭발 대비 행동요령

가. 화산폭발 이렇게 대비하자.

- 화산 근처에 거주하는 경우 미리 대피 경로를 파악할 것.
- 1차 대피경로 차단을 대비하여 여러 대피 경로를 마련해 놓을 것.
- 화산폭발 반경 외에 거주하는 사람과 연락수단을 마련해 놓을 것.
- 재난 대비 물품(손전등, 마스크, 비상약 등)을 상비할 것.
- 고글과 방진 마스크를 준비하여 화산재를 대비할 것.

나. 화산폭발이 시작되었을 때

- 즉시 정부기관의 대피명령을 따를 것.
- 집안에 있는 경우 문과 창문을 모두 닫을 것.
- 실외에서 화산폭발이 시작된 경우 대피 장소를 찾을 것.
- 정부기관에 의해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출입금지.
- 강가나 저지대를 피할 것.

다. 화산폭발 이후

- 가급적 화산재 영향범위 안에서 벗어날 것.
- 외부에 있을 경우, 방진마스크와 고글을 필히 착용하여 눈과 기관지를 보호할 것.
- 지붕 위에 쌓인 화산재는 건물 붕괴로 이어지므로, 상황이 개선되면 청소할 것.
- 기관지 질환이 있을 경우 화산재 접촉을 피하고, 바깥출입을 삼갈 것.

10. 말라리아 예방

가. 확인 및 유의해야할 사항

- 여행할 지역이 말라리아 유행 지역인지 여부 확인.
- 모기에 물리지 않을 예방 조치 마련
- 예방약 복용의 금기 사항이나 주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확인
- 여행 중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취할 응급 조치약 휴대 및 응급조치 준비
- 가능하면 여행 떠나기 1개월 전 의사 방문 및 적합한 말라리아 예방약 준비
- 말라리아를 치료할 수 있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알아두어야 함.

나. 모기에 물리지 않을 방법

- 해진 뒤부터 해 뜰 때까지 외출을 피함.
- 밤 외출할 때 긴소매나 긴 바지 옷을 입고, 모기를 자극하는 짙은 색 옷 피하기.
- 노출된 피부에 모기 기피제를 도포해야 하나,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문이나 창에 방충망을 설치함.
- 모기가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때는 모기장을 사용.
- 모기약을 뿌리고 모기향을 피움.

11.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가. 일반 국민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꼼꼼하게 씻기
- 기침,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는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코로나 19 유행지역의 경우 외출 및 타 지역 방문자제.
-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를 것.

나.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이나 목 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 등교나 출근하지 않고 외출 자제.
-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3~4일 경과 관찰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39),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해 진료

“슬기로운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잠언22:3)”

참고 자료

- www.0404.go.kr(외교부 해외안전여행)
- www.kcms.or.kr(한국위기관리재단)
- travelinfo.cdc.go.kr(질병관리본부)
- 해외안전여행 가이드북(외교부)
- KOICA 안전관리지침(KOICA)
- 안전생활 가이드(소방방재청)
- 선교사 위기관리 표준정책 및 지침서(2014, 한국위기관리재단)

위기와 위기 후 성장

| 세계선교훈련원 심리상담
권이현 교수

위기단계 (Crisis Stage)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즐거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한다.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가 보인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과 방법이 무용지물일 때가 있다. 위기는 사람을 무력화시키고 사람이 자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상황을 말한다(Belkin, 1984). 위기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서 개인 혹은 사회가 겪는 혼란 상태로서, 이 상태에서 사람은 중요한 삶의 목적에서 좌절을 경험하거나 삶의 주기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에서 심각한 붕괴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위기라는 용어는 붕괴 그 자체가 아니라 붕괴에 대한 공포, 충격, 고통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다 (Brammer, 1985). 전문가들은 위기사건과 위기경험을 분리해서 이해한다. 같은 위기사건을 경험해도 누구에게는 위기가 되고 누구에게는 위기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 위기경험의 수준이나 과정 또한 개인과 문화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위기경험에 근거해서 위기사

건에 대응하는 타인의 위기경험을 해석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적절한 도움을 방해한다.

위기사건의 성격과 개인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4단계를 거쳐 위기 경험이 진행되는 것으로 관찰된다. 1단계에서는 발생한 위기 사건을 일상적인 대처기제로 처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개인의 대처능력과 자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데서 오는 긴장과 혼란이 증폭되는 단계이다. 3단계는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의 자원(소속단체나 사회기관)과 연계하는 단계이다. 4단계는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의뢰가 필요한 단계이다(Marino, 1995).

1단계에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면 심각한 위기경험이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2단계에서 통제력을 상실한 위기상태로 들어간다. 모든 사람들의 위기경험이 4단계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했지만 위기라고 느끼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고 영향을 아예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위기 사건을 경험한 모든 사람이 붕괴에 이르는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지만 (거의) 모두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스트레스는 “인간이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을 말한다(Lazarus, 1993). 결국에 문제는 해결했지만 하지만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어렵지만 해결 가능한 사건’역시 많이 경험하게 되면 위기까지 아니어도 일종의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되면 개인의 심리상태는 약해지고 외부자극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에 취약해진다. 이때 위기사건이 발생하면 예전에는 그런 특징의 사건이 위기까지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심리적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만일 위기 경험으로 내적 고통이 지속되면 개인은 심각한 정서적·행동적·인지적 역기능을 일으킬 수 있다.

외상이라고도 불리우는 트라우마(Trauma)는 내부 또는 외부에서 오는 너무 강력한 자극으로 인해 정신 내적작용의 붕괴나 장애를 의미한다. 감당할 수 없는 충격으로 인해 자아를 보호하는 방어체계가 무너지고 압도되어 상황, 환경, 대인 등과의 관계 능력이 상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트라우마는 폭력이 가해진 심리적 상처로서 파급효과(생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로 발전할 수 있다. PTSD는 신체적 손상과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건에서 정신적 외상을 받은 뒤에 나타나는 질환으로 과민반응, 사건의 재경험(플래시백, 악몽), 감정 회피 또는 공황, 마비 등의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이 한달 이상 지속될 경우 임상적 치료를 요한다. 자연재해보다 인재로 인한 PTSD 희생자가 더 많다. 인간이 만들어낸 외상 중에서도 가족이나 가까운 동료가 직접적으로 주는 충격으로 PTSD의 희생자가 더 증


가한다고 한다. 외상 위기 경험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스트레스 경험으로써 정신적인 고통과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게 하는 장애를 일으킨다. 이렇게 스트레스, 위기, 외상은 연속선상에서 동시에 혹은 과정적으로 경험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구분 없이 위기라고 부른다.

위기 전 단계(Pre-Crisis Stage)

위기대처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일상에서 대처기제를 많이 준비해놓을수록 위험한 상황에서 문제해결 가능성이 높아져서 극단적인 위기나 외상으로부터 자신을 가족을 보호할 수 있다. 일상에서 대처기제를 ‘습관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사람은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인지’했을 때부터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고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불확실성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그리스도인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대처방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산성되고 방패되시는 하나님의 통제력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돌보심을 신뢰할 때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 물론 우리의 믿음과 다르게 불안의 감정이 떠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때 우리 몸을 이해하면 조금 더 우리의 믿음과 감정을 일치시킬 수 있다.

최근의 신경과학과 뇌 연구는 불확실성이 뇌의 감정영역에서 위협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와는 다르게 감정적으로 보면 위협이 큰 것처럼 느끼게 된다. 안정을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부분(전두피질)을 자극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느리고 깊게 실행하는 복식호흡이다. 또 다른 방법은 일상에서 가능하고 (해왔던) 작은 일들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청소, 식사준비, 찬양 부르고 듣기, 자녀들과 놀이개발하기, 혹은 방역 규칙을 준수하면서 할 수 있는 봉사 등이다.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직 발생하지 않거나 자신과 아직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것, 혹은 근거가 없는 정보에 과민하거나 몰입해서 일상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에너지와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뉴스를 모두 찾아보고 세상의 모든 일에 관심을 쏟는 시간은 중보기도 시간으로 한정하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통제할 수 있는 내 시간, 내 몸, 내게 주어진 일과 책임에 관심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평상시 심호흡을 자주 연습하고 먼 미래 혹은 저 멀리 있는 세계를 무한정 걱정하기보다



내가 섬기는 나라, 내가 속한 지역, 내가 맡겨진 일에 집중하는 것이 불안 대처를 연습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물론 운동은 불안 대처를 위한 좋은 습관이다. 운동은 우리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필수적이다. 간단한 운동이라도 지속하게 되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고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줄여준다. 가족과 오랜 시간을 한 공간에 있을 때 운동은 더욱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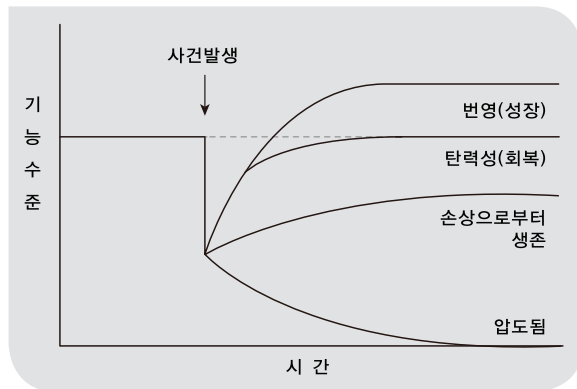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반복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뉴스 및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라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미디어라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정신 건강을 해치거나 손상시킬 수 있다. 많은 양의 미디어를 소비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포와 불안의 증가로 이어진다. 위기 사건 발생 기간 동안 미디어를 소비하는 시간을 관리하고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뉴스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고 컴퓨터나 모바일에서 뉴스 알림을 끄면 불안과 부정적인 감정이 감소할 수 있다. 최신 뉴스나 업데이트된 위기 상황에 관한 정보는 하루에 1~2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뉴스나 미디어를 소비하는 습관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일상에서 자주 뉴스를 보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는 정도라면 충동을 절제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하나님과 영적관계 다음으로-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건강한 대인관계를 평상시에 유지하는 것이다. 위기 경험 후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건강한 가족 혹은 가족과 같은 기능을 하는 관계들의 지지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물론 위기를 적절하게 인식하고 정서 조절 능력과 같은 개인적 역량도 중요하다. 하지만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의미있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관계에서 위기를 극복할 만한 심리적 자원을 얻어낼 수 있다.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외상 사건으로 인해 경험하는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을 표현하고 옆에 같이 있어달라고 요구하고 필요한 것을 부탁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정리해서 수용하게 된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대안을 고민해 보고 계획하고 하나씩 실행해가면서 일상생활 기능으로 빠르게 복귀하는 것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를 때 오는 인식의 극심한 혼란상태이다. 건강한 지지체계는 외상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신체적인 안전과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하고 정신적 혼란을 말하도록 격려해서 외상을 경험한 개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생각을 잘 정리하도록 돕는다. 이렇게 중요한 첫 번째 응급처치를 가장 먼저 제공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고 친구이고 사역 동료이다. 몰아붙이거나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우리와 같이 있으니 너는 안전해, 네가 극복할

수 있도록 옆에 있을께'라는 따뜻한 메시지 안에서 우리는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다. 사실, 외상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심리적 예방이다. 복잡한 사회에서 사건과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평상시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과 동료들과 건강한 대화로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관계를 쌓아놓는 것은 위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또한 일상에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상대방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태도, 적절한 소통방식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 갈등 상황에서 의견을 조율해보는 것 등 모두 일상에서 건강한 대인관계를 갖기 위한 좋은 시도이다.

위기 후 단계(Post-Crisis St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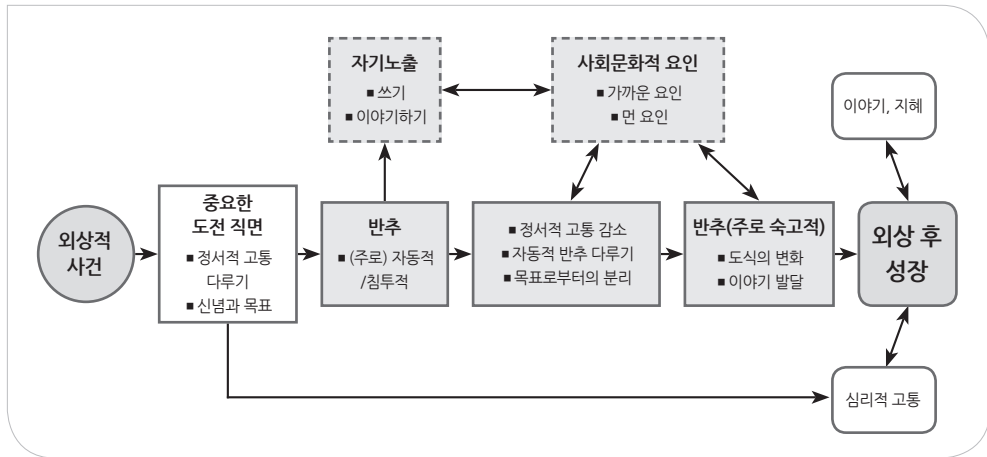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트라우마는 일반적으로 자주 경험하지 않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사건 때문에 생존자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무력감 및 위협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주로 위기사건 생존자가 4-6주 후에 회복되는 것과 달리 외상을 경험하는 개인은 심리적으로 이 사건에 계속 고착되어 악몽, 플래쉬백, 공황, 과도한 각성과 같은 침투적 현상을 경험한다. 누구나 개인의 생명과 존엄에 위협을 주는 사건을 경험하면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한달 이내에 일상적 심리상태로 회복하게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라고 부르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 때문에 일상생활 복귀가 어렵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외상 사건 뒤에도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출처 : 외상 후 성장, Lawrence G. Calhoun, Richard G. Tedeschi, 2015〉

외상이 될만한 위기 사건 발생 후 가까스로 생존하는 사람과, 사건 이전 상태의 기능 수준으로 회복하는 사람과, 회복을 넘어서 사건 이전보다 오히려 기능 수준이 더 높아지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경험을 외상 후 성장(Posttrauma Growth, PTG)이라고 부른다. PTG는 트라우마 사건에 맞닥뜨려 분투한 결과로 개인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변화로서 심리학자

칼훈(Calhoun)이 1995에 처음 사용하였다(Calhoun&Tedeschi,1999). 외상 후 성장은 외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심리적 성장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는 사람에게서 보이는 특징은 개인적인 힘(personal strength), 타인과의 관계(relating to others), 위기 상황에서 삶의 새로운 가능성(new possibilities in life), 우선순위의 변화 조절, 삶에 대한 감사(appreciation of life), 영성(spirituality)이다. 이런 요인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개인 안에서 작용하며 ‘성장과정’을 밟는다. 칼훈이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 사람들을 연구했을 때 관찰되는 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다.



〈출처: 외상후 성장〉

사람은 위기 사건을 경험하면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1) 핵심 신념을 재조명하게 된다. 자신의 세계관, 신념, 사고방식으로는 현재 직면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거나 적절한 인식이 불가능해 혼란스러워지면서 2)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불안, 분노, 우울감 등의 감정이 느껴지고 3) 침투적 자기 반추를 하게 된다. 침투적이라는 것은 의도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사고와 감정에 몰두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때 외상 후 성장 과정을 밟는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멀리하거나 사회생활로부터 자신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4) 부정적 정서 스트레스 다루기 시작한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적거나 타인과 이야기한다. 자신 안에 몰입하는 침투적 반추가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5) 반영적 반추를 한다. 자신의 부정적 감정에 솔직하고 자신의 충동적 행동을 반성하지만 죄책감에 빠지지 않는다. 6) 사회적 지지와 개방된 지지에 자신을 노출시킨다. 안정감을 느끼는 모임에 참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 7) 의도적이고 반영적이고 건설적인 사고로 생각의 도식을 변화시킨다. 8) 자신과 타

인을 수용하고, 자신에게 발생한 사건과 상황을 받아들인다. 9) 이 사건을 조금 더 큰 내러티브에서 해석할 수 있고 지혜를 얻는다. 10) 이제 위기 사건을 경험한 개인은 건강을 회복할 뿐 아니라 11)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외상 후 성장을 위한 내러티브(이야기)를 도출하는 것은 이 과정의 정점으로 보여진다.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당면한 위기사건이 고통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들까지 가져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처음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와는 다르게 사건을 이해하는 관점이 생긴다. 미래의 삶의 도전거리들에 탄력성 있게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강한 핵심가치를 개발할 수 있다.

내러티브를 도출하는 방법은 삶의 중요 사건들을 시간, 연대별로 표시하면서 내러티브를 작성해 보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자세히 적거나 말해보면 인생에서 경험한 힘든 사건들이 삶의 방향, 정체성, 자아상, 핵심가치, 대인 및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전환시켰는지 보여준다. 무작정 서술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이드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어떤 상태에서부터 변화되었습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겠습니까? 이 사건 이후 당신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때 간과한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고난과 역경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스토리텔링(story-telling)할 수 있는 욕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내러티브를 도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창조-타락-구속의 메타 내러티브(Meta-Narrative)속에 개인의 위기 사건과 경험을 해석해서 새로운 위기 후 성장 내러티브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스토리텔링의 치유를 경험하고 싶다면 고통에 먼저 진실해야 한다. 결과를 너무 빨리 보려고 하기보다 나의 약함과 고통을 투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과정’을 천천히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느끼고 싶거나 타인들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내러티브를 도출한다면 오히려 정신건강을 해치게 된다. 우리는 자신과 타인에게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진실하지 않을 때 불안해기 때문이다. 불안이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신체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후에 우리는 각자의 내러티브를 갖게 된다. 지난 3개월여 간의 시간은 누구에게는 위기가 되고 누구에게는 감당할만한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 이 사건을 해석하고 내 삶에 갖는 의미를 구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코로나바이러스 사건을 경험하기 전의 모습과 비교해 보았을 때, 당신의 기능 수준은 어떠한가? 더 떨어졌는가? 아니면 이전 상태와 같은가? 혹은 더 성장해가고 있는가?

결론: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울 때 주의할 점

위기와 관련된 몇 가지 주요 개념을 살펴보았다. 위기사건과 위기경험의 분리, 스트레스와 외상, 그리고 건강한 위기 대응을 위한 태도와 실천 등이다. 무엇보다 위기 후 성장에 관한 이해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깊게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나누어보려고 한다. 선교사들과 교회 사역자들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자주 담당하게 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통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에베소서 4:13-16) 성장하도록 돕기 원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위기에 처한 사람의 내러티브는 그들이 도출해야 하는 것이지 돕는 사람의 내러티브를 주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선교사들은 ‘위기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위기경험 보유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위기사건과 위기경험을 자기 경험에 빗대어 일방적으로 해석해주거나 의미를 결정해주는 경우가 있다.

특정 위기 사건으로 외상을 경험한 사람은 사람들을 자동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위기를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타인의 위기 경험을 들으면 내 범주에 속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이분화해서 평가한다. ‘이런 사건을 겪은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 혹은 ‘이런 종류의 사건을 저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식이다. 위기 사건을 많이 경험하고 해결해 본 사람들은 더 지혜롭고 많은 정보와 대처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사람은 보지 않고 문제만 보고 도우려 한다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각 개인은 성장 배경, 대인 관계 양상, 가치관, 한 집단 내에서의 위치, 특정 사회와 문화권 내에서의 행동 규칙과 기준, 삶의 목표와 사명, 행복의 의미 등에 따라 각자 위기 사건을 인지적으로 처리하고 정서, 행동적으로 반응한다. 나와 타인의 외상 후 성장 스토리텔링은 비슷하거나 다를 수 있다. 우리 가족과 다른 가족의 위기 역사는 완전히 다르다. 나에게 분명하게 문제해결 방법도 입장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참된 것을 행하되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데에도 역시 우리의 원칙이다.

코로나-19 위기에서 고통 치유하기

| 번역
김사랑 간사(WMTC)

* 아래 내용은 특별히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상황 가운데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독교 국제단체인 트라우마 힐링 연구소(Trauma Healing Institute)에서 제작된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선교지, 교회 혹은 격리된 장소에서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더 많은 정보는 www.traumahealinginstitute.org 에서 얻을 수 있다

워크샵 목적

코로나-19 질병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 코로나-19 위기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도울 것이다.
- 위기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에 대해 점검해 본다.
- 스스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코로나-19의 정신적 외상으로부터(트라우마) 치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이 주제는 제시된 반영 질문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고 실천을 연습할 수 있는 작은 그룹에서 가장 잘 사용될 수 있다. 만약 혼자 읽어보게 된다면, 질문과 연습을 따라 적어가면서 스스로 적용해보길 바란다.

내용을 읽기 전에 먼저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질문에 대해 토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것은 "정답"을 말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고 당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때 치유가 되고, 만약 혼자라면 글을 써보는 것으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

그룹으로 진행 할 경우에는, 2~3시간의 진행과정을 할애한다면 제시된 모든 내용을 한번에 다룰 수 있다. 혹은 여러 차례 나누어서 짧게 만날 수도 있다. 이 경우 각자의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각 시간을 마무리하고, 다음 모임은 지난 시간에서 나누었던 내용을 복습하면서 시작한다. 예를 들어, 지난 모임에서 나누었던 것 중 기억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공유하고 싶은 성찰이나 경험이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학습 개관

파트1 : 코로나-19는 언제 끝날까?

파트2 : 코로나-19란 무엇인가?

파트3 : 새로운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파트4 : 대혼란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파트5 : 우리는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으로부터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파트6 : 마무리

1. 코로나-19는 언제 끝날까?

- 남편은 출장에서 막 돌아왔고 그의 아내와 저녁 식사하기 위해 앉아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다.

남편: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이 취소되었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아내: “글쎄, 출장 간 동안 뉴스 봤었어?”

남편: “그래, 물론이지. 우리 모두는 코로나바이러스와 그것이 우리 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

의해 왔지만, 나는 사실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우리는 주로 시간당 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걱정해왔어. 우리 교회 찬양 팀에서 기타 치는 청년 알지? 음악학원 운영하잖아 오늘 밖에서 만났는데 정말 사는 게 걱정된다고 하더라고. 모든 레슨이 취소된 상황에서, 집세를 어떻게 부담할 수 있겠어? 내가 보기에 몸도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다음날 부부는 그들의 요양원에 계시던 고모가 바이러스와 함께 병원에 실려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병원이 모든 방문객을 막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모를 방문할 수 없었다. 다음날, 그들은 그녀가 천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부부는 장례식 절차를 도우면서 예상보다 모든 일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격리 규정으로 인해 장례식에는 몇몇 가까운 친척들만 참석할 수 있었다. 장례식을 치를 장례식장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를 받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아내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일하러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며칠 동안은 그동안 미뤄두었던 집안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렸으나 곧 우울해지기 시작했다. 남편에게 "언제 우리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올까?"라고 불평했다. 몇 주가 지날수록 그녀는 점점 더 불행해졌고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할 수 있으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것을 이 상황에서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상태가 되었다.

이 부부가 속한 목장의 목자는 섬기는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부부는 자신의 마음과 신앙의 상태를 목자에게 말할 수 있었고 따뜻하게 공감 받았다. 온라인 그룹모임에서 대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성경공부를 함께 하기로 했다. 다른 성도가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날씨가 어떻든 매일 활기차게 산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주었다. 교회는 주일 예배를 생방송으로 진행했고 온라인 기도모임도 가졌다. 차츰 부부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갔다. 건강하게 시간을 보내는 방법들도 모색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벌어지든 우리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

되돌아 볼 질문

1. 위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2. 교회는 이 부부를 어떻게 도왔는가?
3. 이 이야기에서 당신과 가장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동안 코로나-19에 대해 많은 정보가 쏟아졌다. 간략하게 살펴보고 당신이 코로나-19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자.

2. 코로나-19란?

코로나-19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인 SARS-Cov-2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계열의 몇몇 다른 구성원들은 흔한 감기나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다. 이 바이러스는 동물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 새로운 바이러스는 유행병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지역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그것은 극도로 전염성이 강하며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그 질병은 비말 안에 있는 바이러스에 의해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퍼진다. 이 바이러스는 재채기할 때, 기침할 때, 웃을 때, 노래할 때, 또는 단순히 말하는 것만으로도 퍼진다. 그것은 눈, 코, 입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는데, 며칠 동안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된 곳을 만진 다음 눈, 코, 입을 만지면 감염될 수도 있다.

퀴즈

다음 문장을 읽고 그 진술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지 거짓이라고 생각하는지 적어보라. 그 다음 이 글을 마무리할 때 정답을 검토하라. 얼마나 많은 답을 알고 있는지 살펴보라.

1. 코로나-19 질환의 주요 증상은 발열, 마른기침, 호흡곤란이다.
2.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
3. 젊은이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4. 코로나-19에 걸리는 사람들은 모두 죽는다.
5. 코로나-19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만든 것이다.
6. 입원하는 것만이 이 병을 낫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7.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8. 알코올을 사용해야만 표면상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
9. 격리된 상태에서도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다.

(정답은 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되돌아 볼 질문

1. 당신의 속한 공동체(가족, 교회, 직장) 사람들은 코로나-19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는가?
2. 우리가 방금 배운 것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가질 수 있는 다른 관점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미치는 물리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이 위기의 정서적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자.

3. 사람들은 이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아래 질문에 대해 그룹에서 함께 나누어보라. 만약 개인적으로 이 글을 읽는다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로 적어보자.

되돌아볼 질문

1. 이 바이러스가 만든 위기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2. 다음과 같은 것을 느끼는가?
 - a. 무기력감을 느끼는가? 왜 그런가?
 - b. 화가 나는가? 왜 그런가?
 - c. 두려운가? 왜 그런가?
3. 코로나-19로 인해 어떤 손실을 경험했는가?
4.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었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무기력감 : 아무도 당신 말을 들어주지 않거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낄 수 있다. 당신은 예상치 못한 사건의 희생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세상이 이치에 맞지 않게 돌아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를 수도 있다.

• 분노 : 당신은 형편없는 결정을 내린 지도자들이나 또는 당신이 지지하는 지도자에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화가 날지도 모른다. 당신은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에 화가 날 수도 있고, 당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당신 스스로에게

화가 날 수도 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분노를 시험할 때, 우리는 그 이면에 우리의 두려움이 내재되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 두려움 : 당신은 죽음, 변화, 직업, 가정, 삶의 방식 또는 삶의 방향성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바이러스에 양성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거나 감염률이 높은 집단에 속해있다면 당신이 그것으로 인해 오명을 쓸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이나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두려울지도 모른다. 이 상황에 너무 과하게 반응할까봐 걱정되고 혹은 너무 무감각한건지 걱정할 수 있다.
- 손실/상실 : 직업, 소득, 집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이 끊겼을 수 있다. 당신은 작별, 의식,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었을 수도 있다. 기다리던 행사가 취소될 수도 있다. 예측 가능한 삶의 리듬을 잃었는지도 모른다.
- 격리 : 당신은 슬프거나 외롭고, 걱정되거나, 죽고 싶거나, 뒷에 빠졌다고 느낄 수도 있고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 가족들과 함께 작은 집에 머물러 있었다면, 답답하고 정신없는 느낌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러한 감정들은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고 항상 피곤함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감정들 중 일부는 격리기간이 끝난 후에도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

이 시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무기력감, 공포감, 상실감, 고립감 등의 감정에 압도되는 사람들은 정신적 충격을 느낄 수도 있다. 과거에 경험했던 다



른 일들의 아픔이 이때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놀라지 말라.

되돌아 볼 질문

이 상황에서 당신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당신은 코로나-19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되돌아보고 이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았다. 이제 이 위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라.

4. 대혼란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주어진 보기 중 더 원하는 실습을 선택해서 해 보거나, 둘 다 해도 실행해도 좋다.


실습 1. 당신의 기분을 그려보기

빈 종이, 사인펜, 색연필, 또는 연필을 준비하라.

1. 내면을 고요하게 유지하라. 지금 기분이 어떤지 돌이켜보라.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2. 생각나는 대로 그려라. 그린 그림에 대해 평가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이것은 단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 그림 그리는 능력에 대한 테스트는 아니다.
3. 로마서 8:38 - 39를 읽거나 듣고 침묵 속에서 시간을 내어 명상하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4. 위의 구절을 묵상 후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려보라. 그림을 추가해서 그리거나, 종이 반대편에 새로운 것을 그릴 수도 있다.
5. 자신이 그린 것을 다시 살펴보라. 만약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괜찮다면 나누고 아니라면 당신의 느낌을 기록해라.

실습 2.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진 만들어보기

1. 로마서 8:38 - 39를 읽거나 듣고, 그 말씀에 깊게 침잠하여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2. 만약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작은 그룹이나 짝으로 나누어라. 그 구절의 어느 부분이 당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인지 생각하라. 몸을 사용해서 약 10분 정도 시간을 내어 해당 구절을 표현해보고 사진으로 찍어보라.

만약 여러분이 혼자라면,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 있는 구절의 부분을 신체적으로 표현하라.

3.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생생하게 재현해보라. 포즈를 30초 이상 유지하는 것도 좋다.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각 개인이나 그룹이 차례대로 재현 해 볼 수 있다. 심지어 핸드폰으로 스스로를 찍을 수도 있다.

4.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토론해보라.

- a. 이 연습을 통해 그 구절의 어떤 것이 당신에게 더 명확해졌는가?
- b. 이 구절에 있는 어떤 것이 당신에게 위로나 희망을 주었는가?
- c. 이 실습을 하는 기분이 어땠는가?

5.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에서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반영 질문

- 1. 이 상황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 2. 이 상황을 대처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피드백을 공유한 후에 아래 주어진 목록에서 아직 언급되지 않았지만 관련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추가해보라.

감정:

-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이런 여러분의 감정을 정상으로 받아 들여라. 다양한 감정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당신은 위기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다.
- 손실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라. 우리가 손실을 당하거나 할 때 슬픔을 느끼는 것은 정상이다.



- 천천히 깊게 호흡하는 것,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장면 상상 등 강한 감정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배워라.
- 신체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곳에 주의를 기울여라. 긴장감을 느끼는 신체의 어떤 부분이라도 긴장을 풀도록 노력하라.
- 안정감을 주고 귀 기울이는 법을 잘 아는 사람들과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라. 더불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 당신의 기분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하라.
-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보살핌을 생각하며 휴식을 취하라.
-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감정을 말이나 예술이나 놀이로 표현하도록 장려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라.
- 질병, 위험 및 적절한 대응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출처를 찾으라.

고립:

- 전화, 온라인 또는 기타의 방법을 찾아보라. 긴밀한 물리적 접촉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라.
- 여러분을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성경 구절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라.
- 일상의 흐름을 잘 계획하라.
- 가능하면 운동과 신선한 공기를 마셔라. 규칙적으로 쉬고 매일 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라.
- 당신이 즐기는 것을 하라.
- 타인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
- 의미 있는 활동을 찾으라.



반영질문

당신이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두 가지 일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적어보자.

6. 마무리

- (1) 조용한 장소에서 내면을 고요하게 하고 가방이나 배낭을 메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라. 어떻게 보이는가?
- (2) 자신의 고민을 생각해 보라.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그것을 각각 하나씩 가방에 넣는 상상을 해보라. 상상하거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봄으로서 실행해보고 가방의 무게를 느껴라.
- (3) 다음과 같은 구절을 되새겨 보라.
빌립보서 4:6-7 :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전서 5:7 :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 (4) 가방에 들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서 걱정의 짐을 가볍게 하라. 이 과정을 상상하거나 그려보라. 지금의 기분은 어떤가?
- (5) 함께하는 그룹과 편안함을 느끼는 만큼 공유해보라. 만약 여러분이 혼자라면, 함께 나눌 누군가를 찾도록 노력하라!

찬양(노래)을 부르거나 위로와 힘을 주는 찬양을 들으면서 중보 기도자들과 연결하라.

퀴즈 해답

1. O

2. O

(사람들은 증상을 보이기 전에 2주 동안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기에 완전한 분리가 불가능할 수 있다.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제한하면 바이러스의 확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2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머물 것을 권장한다.)

3. X

(젊은 사람들은 자신이 중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기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4. X

(대부분 감기나 독감에 걸린 것처럼 증상이 경미하거나 아예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노년층(65세 이상), 심장질환, 폐질환, 호흡장애, 당뇨병 등은 고위험 환자가 될 위험이 더 높다. 많은 코로나-19 사망자들은 대부분이 질환들을 가지고 있다.)

5. X

(이것은 단순히 사실이 아니며 그것을 믿는 것은 위험하다!)

6. X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회복할 것이다. 심각한 경우는 대개 병원이나 의원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7. X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매번 최소 2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자주 씻어야 하고, 눈, 입, 코를 만지지 말아야 하며, 최소 1.8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손을 얼굴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되며 감염 위험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코로나-19 보균자라면, 마스크착용은 다른 사람들에게 질병을 퍼뜨리는 것을 막을 것이다. 많은 코로나-19 환자에 노출되어 있는 보건소 직원들은 고품질 마스크와 보호복을 착용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서 제시하는 마스크 사용에 대한 지침을 따르자.)

8. X

(비누와 물로 씻으면서 표면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

9. X

(세계의 질서를 위해 우리의 공동체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을 많이 경험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이것은 나쁜 성격이나 믿음이 부족하다는 징후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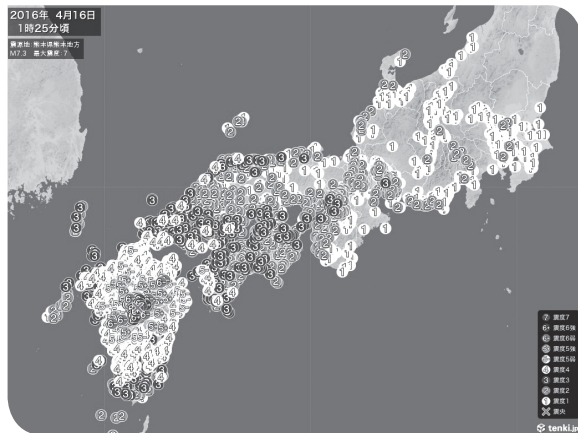
선교사의 위기- 재난 : 지진 사례

| 박철호 선교사 (일본 구마모토현)

2016년 구마모토지진 개요

4월 14일 21시 26분(진도 6.5)과 16일 01시 25분(진도 7.3), 두 번에 걸쳐 발생한 구마모토지진은 구마모토지역 전체와 오이타현 일부 지역에 발생한 내륙형지진이다. 2018년 4월 말까지 4,484여 회(진도1 이상)의 여진까지 발생해 장기간 지진의 영향 아래 놓여 있었다.

건물 붕괴와 토사 붕괴 등의 직접적인 사망자가 49명, 인근 5개 현을 포함해 부상자는 1,663명에 달했다. 4월 16일 지진 직후 대피한 사람이 최대 183,882명으로 집계되었다. 2020년 현재 구마모토지진 관련



지진당시 전국진도표기



대파된 구마모토성



완파된 가옥

사망자를 포함하면 270명에 이르고, 완전 붕괴된 건물은 8,642동으로 집계되었다. 구마모토의 상징인 구마모토 성이 큰 피해를 입었고, 아소지역 158 곳의 토사가 무너지며, 아소대교가 붕괴되는 등 특히 아소지역과 마시키 지역에 피해가 컸다. 그로 인해 2019년 말 기준으로 9,000여 명이 가설주택 등에서 피난생활을 해 왔다.

구마모토의 교회들 역시 다수 피해를 입었는데, 본 선교사가 담임하는 구마모토미나미침례교회 역시 두 번째 지진 때 대파해 최종적으로 완전 파손으로 인정되었다. 그 외 부분 파손을 포함해 수리 및 재건축한 교회들이 생

겨났다. 구마모토지진의 복구는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며, 특히 구마모토성 등의 문화재 복구는 20년간 장기 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있다.

지진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평소 일본의 자연재해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던 본 선교사는 2007년 3월 파송된 이후 2016년까지 2-3회 정도의 경미한 지진을 경험하긴 했었다. 그러나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은 희박했고, 그에 대한 대비라고 할 만한 것 역시 없었다. 게다가 2016년 당시 상황이

7년간 현지교회와의 공동사역을 마치고, 2015년 2월부터 가정교회로의 개척과 도전을 시작했기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집중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돌연 찾아온 두 번의 강진은 선교사 가정은 물론 130만명의 현민, 아니 일본열도 전체에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지진 후 4년이 지난 지금까



박선교사 거주지 파손된 우토시청



지 지진 피해와 복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면 2016년 4월 14일 자택에서의 저녁식사를 마친 후 두 아이를 재운 직후로 기억한다. 2층 책상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첫 지진이 발생했다. ‘구구구구 쿵!’하고 마치 땅 전체를 수직으로 때리는 듯한 무겁고 거대한 소리와 함께 그 다음 10여 초 이상 좌우로 크게 흔들렸다. ‘어, 어 여보!’ 외마디에 이어 두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렸다. 집 전체가 크게 흔들렸고, 공포 속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진동이 멈추자마자 아이들을 안고, 계단을 내려와 밖으로 피신했다. 물론 우리 뿐 아니라 몇몇 집에서 사람들이 나왔고, 한 맨션의 넓은 주차장 중앙에 함께 모여 공포 속에서 계속되는 여진과 싸운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날 우리는 지진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것이다. 여진이 계속되었기에 집 안에서는 잘 수 없었고, 텐트를 꺼내와 주차장에서 밤새 잠을 설쳤다. 다음날 아침 집안 이곳저곳을 살펴보니 많은 가구들은 넘어지고, 가전들도 파손되었다. 집의 실내외는 뒤틀린 곳도 발견되었다.

이틀이 지난 4월 16일은 더욱 심각했다. 1층 거실에서 잠든 새벽 시간에 더욱 강한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집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공포와 함께 정신없이 아이들과 밖으로 뛰쳐나온 우리는 더 이상 집안이 안전치 않다는 확신을 얻고, 지인 및 교인들과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정보를 얻어 주변에 건물이 없는 땅이 다니던 소학교 운동장으로 피신했다. 이미 수많은 차량들이 주차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뜬눈으로 차안에서 남은 밤을 보냈다.



학교운동장에 대피중

곧바로 가스와 수도의 공급이 순차적으로 중지되었고, 물자 수송이 되지 못한 탓에 대형 슈퍼마켓 역시 영업을 중지하게 되었다. 이후 한 달간의 생활은 대피소(시청 공동청사), 자동차, 집을 옮겨 다니는 피난민 생활에 가까웠다. 구마모토시와 현에서 공급하는 담요와 주먹밥 등을 지급받았고, 일본의 다른 지역과 모국에서 보내주신 물자들로 의식주를 포함해 2-3개월에 걸쳐 서서히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2번의 큰 지진과 4,400여 회가 넘는 여진 속에서도 가족들이 안전하게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이다. 주께 감사드리고, 중보기도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은 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린다.

지진대처요령과 대응

다음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요령과 그 대응방법을 나누고자 한다. 단, 본 선교사의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점과 자연재해의 대비가 비교적 갖추어진 일본의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싶다(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을 수 있다).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소개한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먼저, 돌연 지진이 발생하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상황인식이 필요하다. 혹자는 한신대지진의 예를 들며 신속하게 화재에 대응해야 한다느니 가스를 잠궜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경험상 진도 7의 규모는 격렬한 좌우 진동의 충격으로 인해 전혀 움직일 수 없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책상 혹은 탁자 밑으로 겨우 몸을 숨기는 것 정도일 것이다.

다음으로 지진 직후에는 정리정돈보다 물 확보가 더 중요하다. 마실 물은 여러 루트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기에 여기서 말하는 물은 화장실과 세탁을 위한 물이라 할 수 있다. 구마모토지진의 경우 지진 직후에 수도공급이 바로 중단되지 않아 욕실의 욕탕에 물을 가득 채웠고, 수도 공급이 중단된 이후에는 빗물과 마을 지하수를 퍼 나르기도 했다. 확보한 물은 이웃들과 나눌 수도 있다.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대피소 등에서의 생활이 불가한 경우 실내에서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본 선교사 역시 지진 발생 후 가구가 넘어지고, 유리가 깨져 실내가 위험하기도 했고, 언제든지 추가 지진이 발생할 수 있었기에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거실을 중심으로 신발을 신고 있었다. 이것은 실제 지진을 경험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잠시라도 집을 벗어날 경우에는 전기 브레이커를 내려야 한다. 이는 화재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이며, 2차 피해를 막아줄 것이다.

공동체적 대응(일본교회 및 총회)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 구마모토지진 후에 일어난 사례 2~3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규슈기독교재해센터의 설립(이후 규키센)이다. 지진 피해 초기에는 전국의 교회들이 물자 및 헌금을 보내려 했을 때 마땅한 창구가 없었다. 결국 피해 지역인 구마모토 내의 몇몇 교회들이 물자의 수령과 보관, 나눔의 창구가 되었다. 이것이 오히려 피해를 입은 교회들에게 또 다른 압박 -실제 목회자의 번아웃 사례와 우울증 등으로 지금도 치료중인 목회자들이 다수 있다- 이 되어 더 이상 수용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후쿠오카현의 교회

들이 힘을 합쳐 규기센를 설립하고, 사무실과 직원들을 두고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이후 전국으로부터의 지원 물자 및 공식 현금창구 역할을 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피해를 입은 지역들의 복구 지원 및 봉사자들의 교육 및 배치에 이르기까지 센터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규기센의 활동은 이어져 이후 연이은 태풍피해 및 폭우 피해지역에 또 다른 지부들을 세워가며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구마모토나사렛교회 피해

다음으로 본 선교사가 섬기는 구마모토미나미교회의 사례이다. 60여년 전 미국 교회의 자금으로 세워진 예배당이 노후화 되고, 고령의 전임 목회자의 오랜 투병생활로 인해 목회의 활력을 잃은 상황에서 지진피해를 입었다. 이는 남아있던 소수의 성도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교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사건이었다. 당시 본 선교사도 함께 방문해 천장이 떨어져 하늘이 보이고, 빗물이 새고 있었던 참담한 상황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 11월 전국 320여 교회의 일본침례교총회에 교인 대표가 참석해 피해 상황과 재건축을 위한 지원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3년에 걸쳐 약 2천만엔 (2억2천만원 상당)의 현금이 모아져 새로운 예배당과 함께 본 선교사가 후임 목회자로 청빙되는 일이 함께 일어난 것이다.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피해를 입은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교회들과 지방회에 속한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며 대응한 열매였던 것이다. 이런 위기의 때에 협동선교는 빛을 발했고, 피해 교회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

선교사 가족 케어

마지막으로 크고 작은 심리적 피해를 입은 본 선교사의 가족을 향한 배려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지진 직후 파송교회 및 몇몇 협력교회들로부터 받은 사랑의 물자 및 위로의 연보가 모든 물리적 부



큐슈기독재해센터 봉사

족으로부터 가족을 지킬 수 있었고, CTS, 국민일보, 대전극동방송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진피해지역의 상황을 알릴 수 있어 이후 한국교회의 수많은 선교팀이 구마모토로 파송되기도 했다. 이것은 실제 해외로부터의 봉사인원 중 한국에서의 봉사팀이 압도



구마모토미나미 완공후



구마모토미나미 완공후취임식

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후 해외선교회의 선교사위기관리팀의 권유로 디브리핑을 받게 되어 일시귀국했다. 세계선교훈련원에서 부부가 함께 지진 이후의 심리적 상태를 인터뷰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이때의 본국에서의 짧은 시간이 쉽이 되고, 다시 돌아와 사역을 재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었음에 감사한다.

2003년 사스시대를 지내며...

| 세계선교훈련원 (WMTC)
이병문 부원장 (선교학박사 D. Miss.)

1. 사스가 무엇인가?

사스(SARS; 사스-코로나 바이러스, SARS-CoV)는 2003년 2월 중국 광둥성에서 시작된 신종 바이러스성 폐렴이다. 약 반년 동안 세계 32개국에서 8,096명이 사스에 감염되어 이 중 약 9%인 774명이 사망했다. 인간의 호흡기를 침범하여 발생하는 급성호흡기질환으로 성인과 노인에서 높은 감염 및 사망률을 나타냈다.

사스는 올해 전 세계에 수백만이 감염된 ‘코로나-19’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성 질병’이고, 동물에서 전염되어 왔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사스는 코로나-19에 비해 전염력은 약하지만 사망률(치명율)이 높아서 당시 세상을 두렵게 했었다.



마스크 부부

2003년 여름에 더 이상의 환자가 생기지 않음으로 사멸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가족은 사스가 시작된 시점인 2003년 2월에 발원지인 중국 G시(市)에 들어갔다. 사스라는 병의 존재를 모르고 들어가서 그 병이 사라질 때까지 공포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17년이 지나고 한국에 돌아왔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온 세상을 바꾸어 놓는 것을 다시 목도하게 되었다. 올해 우리는 ‘전염병의 재난은 늘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욱이 전 세계의 선교사들은 이런 신종 전염병의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다. 내게 사스는 다시 되살리고 싶지 않은 공포의 기억이지만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시대에 주는 교훈을 위해 그 때를 정리해보았다.

2. 사스 시대의 일기(2003년 2월 ~ 2003년 7월)

2월 21일 G시에 도착하다.

우리는 다른 도시에서 중국어를 배운 다음 오래 기도하고 조사한 끝에 G시로 가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3학년의 두 딸을 데리고, 24시간 동안 기차를 탄 끝에 새로운 삶의 터전인 G시에 도착했다. 주변 선교사의 도움으로 집도 구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마련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정체불명의 괴질병(怪疾病)이 돈다는 소문을 들었다. 하지만 마스크에서 아무런 보도도 하지 않고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심각하지 않은 모양이다. 다행이다.

3월 5일 아이들이 학교 적응에 힘들어 하다.

우리는 새로운 도시에 와서 적응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두 딸은 근처의 중국 소학교(초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새로운 학교가 낯설고, 너무 엄격해서 힘들어 한다. 온 정신이 아이들 학교 적응에 쏠려있다.

3월 14일 ‘사스(SARS)’가 정체를 밝히다.

소문으로만 나돌았던 괴질병은 ‘사스(SARS)’라고 명명(命名)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비전형성폐렴(非典型性肺炎)’이라고 불린다. 마스크에서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더 불안하다. 거리에는 마스크를 쓴 사람이 없다. 식초로 닦으면 바이러스가 죽는다고 해서 온 건물에 식초 냄새가 진동을 하고 식초 값도 많이 올랐다. ‘판란근(板藍根)’이라는 차를 마시면 예방이 된다고 하는 등 많은 소문이 돌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어찌 된 것인지 모르겠다. 주님의 평안을 구한다.



3월 26일 사스, 홍콩에 번지다.

사스가 여기서 한 시간 거리인 홍콩에서 집단 발병했다고 한다. 광둥성에서 건너간 의사가 그곳에 감염을 시켰고, 홍콩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집단감염이 있었다고 한다. 홍콩 방송에서 홍콩 수반(首班)이 마스크를 쓰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말했다. 심지어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도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진행을 하며, 매일 SARS 환자 발생현황을 자세히 발표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난리가 난 것 같았다. 불과 일주일만에 상황이 급변했다. 어리둥절하다. 줄지에 우리가 위험한 전염병이 창궐하는 소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려움이 엄습하고 가장으로서 가족 지켜야 한다는 부담을 느낀다.

4월 6일 전 중국에 사스가 번지다.

이제 북경과 중국 각 도시에도 사스가 집단 발병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 정부에서도 모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숨기는 관리는 엄단하겠다고 했다. 매일 중국 각 성(省)별 SARS 환자 발생현황을 발표한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중국에는 이미 2,500여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89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집단 발병을 했고, 어느 종합병원은 사스 환자가 발생해서 병원 전체가 폐쇄되었다는 흥흥한 소문을 들었다. 한국에서도 가족과 지인들이 안부를 묻는 연락이 온다. 하지만 섭섭한 것은 온 세상에 난리가 났는데, 정작 선교본부에서는 ‘괜찮은가?’ 묻는 안부 전화 한 번 없다. 우리는 잊혀진 사람일까?

4월 13일 모든 대학의 문이 닫히다.

모든 대학의 문이 닫혔다. 대학생들은 밖에 나갈 수 없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학생증을 검사한다. 아이들이 다니는 소학교도 부모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고, 아침마다 학생의 체온을 재고, 수시로 소독약으로 손을 씻게 한다. 요즘은 사람을 만나도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악수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두려움이 느껴진다.



신분증검사

4월 24일 사스, 전 세계에 퍼지다.

사스가 전 세계에 이미 4,400명 발병했고 그 중 263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한국과 미국에도 사스 환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그런데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감염되었다고 해서 이제는 병에 걸려도 병원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스를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선교사역을 하러 왔는데 사역은 커녕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 주님은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이 맞나?’ 아이들은 여전히 중국학교를 다니는 것을 힘들어 한다. 여러 모로 힘든 시기이다.

5월 8일 아내가 병에 걸리다.

몇일 전부터 아내의 옆구리에 수포가 생기고 심한 통증을 느꼈다. 집에 가지고 있던 피부병 약을 발랐지만 전혀 차도가 없다. 증상이 사스와는 달라서 조금 안심은 된다. 요즘은 사람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우리도 병원에 가지 않고 버텼다. 하지만 통증이 너무 심해 결국 아파트 단지 옆의 ‘문진소(問診所-보건소)’에 갔다. 사스 환자가 찾아갈 것 같은 큰 병원보다 더 안전할 것 같아서이다. 그곳은 시설이 낙후되어서 제대로 된 진료실도 없이 복도에서 진료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주님께서 경험 많은 의사를 예비해 주셨다. 아내의 통증 부위를 보더니 바로 “대상포진이네! 왜 이제 왔어요? 통증이 심했을 텐데…”하고 진단을 내려주었다. 사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병을 키운 것이다.

5월 12일 가정의 비상사태

아내는 대상포진 때문에 누워있고, 대신 내가 집안 일을 도맡아서 했다. 아침에 아이들을 깨워 아침을 챙겨주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으로 시작해서 집안의 청소와 빨래를 담당했다. 외출하고 저녁에 황급히 돌아와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 저녁을 준비하여 먹고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고 재우면 이미 하루가 다 지나갔다. 물론 이런 날이 길지는 않겠지만 졸지에 가정주부로 돌변해 버린 것이다. 나는 사면초가에 몰린 것 같았다. 자녀들은 힘들어 하고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 사역은 진행될 수 없으며, 아내까지 아파서 나는 가사에 매여 있다. 주님,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5월 26일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드디어 선교본부에서 ‘원하면 귀국해도 좋다.’는 연락이 왔다. 한인들 사이에서 ‘한국에 돌아가야 하나?’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한국에 가면

사람 취급을 못 받고 병균 취급 받아요!”라고 전해주었다. 더욱이 우리는 선교사인데 선교지의 사람들을 두고 어찌 떠날 수 있는가? 여기서 죽더라도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하지만 자녀들은 어떻게 하지? 다행인 것은 이미 낮 기온이 30도가 넘어서 이제는 사스 발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6월 4일 더 이상 환자가 발생하지 않다.

몇일째 G시에는 더 이상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홍콩과 다른 도시에도 환자 발생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제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양이다. 다행이다.

7월 10일 사스 사태가 종식되다.

정부에서 중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더 이상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SARS가 종식되었다고 한다. 만일 가을에 사스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전염병 사태는 끝난 것이다. 5개월 동안에 우리를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었던 사스에서 해방되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스 시대 시민들

3. 사스의 시대를 지내면서 깨닫게 된 것들...

사스의 시대는 한 마디로 ‘공포의 시대’였다. 우리가 그 병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공포 속에서 반년을 보낸 것이다. 지내고 보니까 선교사로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지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각별한 경험이었지만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 기간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 가장 힘든 것은 두려움이었다. 이것은 사단의 가장 큰 무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많은 경우 두려움은 정보의 부족에서 온다. 사스의 시기를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도대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거야?’하는 불확실성이었다. 그러면 소문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심한 두려움 속에 놓이게 된다. 선교사는 주님의 의지하되,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며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팩트에 근거한 판단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한국 선교본부의 소극적인 대처가 힘들게 했다. 사스의 시기 동안 선교지에서는 두려움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데 본부는 안부메일 한번 없었던 것이 큰 상처가 되었다. 선교본부는 선교지의 각종 재난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선교지에 재난이 발생하면 지도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선교사는 선교본부 이외에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고립무원(孤立無援)의 군사이기 때문이다.

셋째, 전염병의 재난이 있더라도 선교사는 그곳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현지인은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가 알고 있는 한, 그때 선교지를 떠난 선교사는 한명도 없었다. 그것은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재난을 피해 떠나는 선교사는 도망가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다시 돌아오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선교사’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많다. 더욱이 선교사는 재난의 시간에 현지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위험하지만 선교사는 섬김을 부름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물론 자녀는 상황에 따라 피신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

넷째, 어떤 위험 상황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 나는 사스의 공포와 사면초가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각별한 주님의 각별하신 임재를 경험했다. (5월 14일 일기)



아내가 아파서 주부로 돌변한지 3일째이다.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리고 와서 저녁을 먹고 숙제를 도와주고 잠을 재웠다. 이런 하루의 일과를 마치니 이미 10시가 넘었다. 유난히 조용한 밤이었다. 아내는 뒤의 침대에 누워서 병으로 신음하고 있고 나는 책상에 앉아 성경을 펴고 있다. 하루 일과가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하나님! 저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정작 여기는 사스라는 듣지도 보지 못한 전염병이 돌아 선교사역은커녕 사람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아파서 저는 가정주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내 기도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때 펼쳐져 있던 성경은 이사야서 27:6이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게 된다고? 지금 나와 함께 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염병으로 모든 것을 막혀 있으며 아내가 아파 나는 주부가 되었는데, 앞으로 지면을 채우는 결실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정말? 나의 절망은 소망으로 변했고, 나의 한숨은 기쁨이 되었다. 그래, 이 전염병은 진정될 것이고, 아내의 병은 나을 것이다. 힘들어 하는 아이들도 적응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현지인들이 일어나 복음으로 지면을 채우는 것을 볼 것이다. 주님의 일이 성취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이 날을 잊을 수가 없다. 진정한 선교사의 시작은 이 날부터이었다. 나는 이후에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를 사역의 비전으로 정하고, 달려갔다. 그리고 나의 사역의 기간 동안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했다. 이런 전환점이 사스로 가장 고통스러웠던 날에 주어졌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각별하신 계획이 아닐까?

4. 전염병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제안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깨닫게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다.’는 것이다. 또 다시 새로운 전염병이 생길 것이며, 세계적인 전염병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선교단체가 지진, 전쟁 등 재난에 대한 매뉴얼은 가지고 있지만, 전염병에 대한 매뉴얼은 없다고 한다. 영적, 지역적으로 최전방에 있는 선교사는 전염병의 재난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따라서 선교사와 선교본부, 그리고 파송교회는 선교사가 전염병 재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 대비책은 선교본부와 파송교회, 그리고 선교사 본인의 대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선교본부의 대비이다. 선교본부는 위기관리 매뉴얼 중에 전염병 부분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매뉴얼 안에는 선교사가 사는 지역에만 발생한 ‘지역적인 전염병’의 경우와 ‘팬데믹(pandemic: 전염병이 범지구적으로 유행함)’에 빠졌을 때를 구분해 놓아야 한다. 또한 선교사에게 대처방법을 사전 교육해야 한다. 어느 선교사가 그런 전염병 상황에 있을 경우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선교사가 고립무원(孤立無援)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고 선교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 파송교회에 연락해서 파송교회가 해야 할 역할을 안내해 주어야 한다.

둘째, 파송교회의 대비이다. 사실 팬데믹에 빠졌을 경우에는 선교본부는 전세계의 수백명 선교사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역량의 한계를 넘어버릴 수 있다. 이때 파송교회가 자기의 파송 선교사를 돌아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파송교회는 먼저 수시로 선교지에 연락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는 안심을 시켜주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선교사가 피신하거나 자녀가 피신할 경우의 대책을 세워놓아야 한다. 물론 피신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특별 재정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선교사 자신의 대비이다. 이는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적인이다.

① 사전에 전염병에 대해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전염병의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위생의식이 필수적이다. 현지인의 위생의식이 낮다고 선교사도 그렇게 사는 것이 현지적응이라는 것은 착각이다. 오히려 선교사 가족은 현지의 세균에 취약하기 때문에 각별한 위생의식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선교사는 기본적인 의학-위생 지식이 있어야 하





며 어느 정도의 위생용품과 기초 의약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국에 전화로 물어볼 수 있는 의사가 있으면 큰 위로와 도움이 된다.

② 실제 전염병 상황이 발생하면 선교사는 먼저 자신의 소명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전염병의 상황은 매우 위협하지만 피해야 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현지인을 섬길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선교사는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전염병 상황에서 선교사는 현지의 다른 한국인과는 달라야 한다.

③ 정보공유와 소통에 유의해야 한다. 충분한 정보는 상황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위험 속에 있어도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면 지나친 불안에 빠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선교지에서는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상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고, 언어 소통의 한계로 상황을 잘 모를 수도 있다. 선교사는 현지의 정보와 함께 국제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자칫 고립되면 더 큰 화를 자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④ 전염병의 위협에서 가족과 팀원을 보호해야 한다. 선교사(팀장)는 자신과 가족, 선교팀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선교사 자녀(MK)는 무방비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선교지 경험이 짧은 선교사는 선교팀장에 비해 정보도 부족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해서 더 큰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선교사는 자신 뿐 아니라 가족과 팀원에게 상황을 알려주고, 적절한 행동지침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전염병 이후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전염병은 지나갈 것이지만 선교사는 그 후를 생각해야 한다. 나는 사스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그곳의 영적인 부흥이 오는 것을 보았다. 지진이 휩쓸고 간 지역에 많은 영혼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재난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생각하게 하고, 신앙에 대해 마음이 열리게 한다. 이처럼 전염병 후에 열릴 영적, 사회적 변화를 대비해야 한다. 성령의 바람을 기대하며 추수를 준비해야 하며, 상처를 싸매줄 치유를 준비하고, 정치/사회적 변화를 예상하며 새로운 선교의 시대가 오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

어차피 선교사는 각종 재난에 노출된 사람이다. 이런 위험 가운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2)

부르심 앞에서, 나의 생명까지도...

| 김바울 선교사(1962~)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 예레미야 1장 5절

김바울 선교사는 1962년 무더운 여름, 부산에서 태어났다. 5살 무렵 생각지도 못한 소아마비 발병은 그에게 찾아온 첫 번째 시련이었다. 한번 발병하면 회복이 어렵다는 소아마비는 6개월 만에 회복되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 그의 가정은 일본에서 넘어온 불교의 한 종류인 일연정종이라는 종교를 믿게 되었다. 그 후로부터 아버지를 따라 열심히 모임에 참석을 하면서 경전을 외우고 하루에 3시간 이상씩 동쪽 벽을 향하여 무릎 꿇고 앉아서 주문을 외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만 가는 우주의 신비함에 대한 의문과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대학시절, 같은 과 선배의 권유로 처음 방문한 교회에서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고, 주일 예배와 새신자 반 성경공부를 통해 구원자이시며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해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란 쉽지 않았다. 1년 가까이 가족들 몰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며 홀로 믿음을 지켰지만, 결국 아버지께 들켜 집에서 쫓겨나 교회에서 홀로 생활하는 일도 있었다.

1982년 2월 14일 아침, 하나님은 이사야 6장 말씀을 통해 김바울 선교사를 부르셨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탄식하며 이사야를 부르셨던 하나님은 동일한 음성으로 그를 부르셨다. 분명한 주님의 음성 앞에서 '주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 주소서!'라고 응답함으로써,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

그 후 이어진 2년 반 동안의 군대 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첫 번째 순종이었다. 교회 하나 없는 산꼭대기 오지에서 핍박을 받으며 복음을 전함으로써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 인도하였고, 그들을 위해 교회를 개척하기 하였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에서 전임 사역하던 그에게 두 번째 시련이 찾아왔다. 왼손 두 번째 손가락에 이상이 생겼고, 진단결과 악성 흑색종이라는 피부암 판명을 받았다. 손가락을 완전히 절단한 뒤, 한 달 정도의 수술과 입원 기간을 거치는 동안 하나님은 김바울 선교사를 다시 부르셨다.

'너의 생각과 고집을 다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열방을 향해 나아가라'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다시 한 번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응답하며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다.

1999년 4월, 선교지를 결정하기 위해 처음으로 I국을 방문했다. 가는 곳마다 복잡하고, 덥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환경은 그로 하여금 '이곳은 올 곳이 못된다.'고 생각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을 것이라 말하며 결심하던 중, 200년 전 이곳에서 사역하고 끝내 자신들의 사역지에 묻힌 선교사들의 묘지를 방문하게 되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약했을 200년 전 I국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신실하게 응답했던 이들의 무덤 앞에 서니,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에 눈물이 흘렀다.



‘주님! 내가 이곳에 오겠습니다. 이 분들이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사역을 부족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던 중 한 선교사님의 입을 통해서 I국 북쪽 지역에 있는 1억 7천만의 무슬림을 위해 사역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4억이 넘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릴 때 즈음, 하나님은 또 다른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2000년, 선교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마치고 가족들과 I국에 도착하였다. 초기 정착 과정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 집을 구하고, 자녀들을 위해 학교를 알아보고, 언어를 공부하며 현지인들의 문화와 삶에 대해 배우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어린 아이처럼 하나씩 배워가던 중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다. 2000년 11월, 어느 날처럼 언어 공부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지하도 공사장을 지나면서 흔들리는 버스에서 떨어졌고, 버스 뒷바퀴가 그의 왼쪽 다리 위로 지나가는 일이 일어났다. 8시간이 넘는 첫 번째 수술, 4개월이 넘는 병원생활, 4번의 전신마취 수술과 지속적인 치료에도 후유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교통사고로 다친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갈 즈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수년 전 왼쪽 손가락에 있었던 암이 전이되어 겨드랑이까지 왔다 것이었다. 말 그대로 절망적이었다. 어떻게 할지 모르는 캄캄한 상황 속에서 한국으로 급히 이송되어 수술을 한 뒤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거둬지는 항암치료도 고통스러웠지만, 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은 머릿속에서 맴도는 I국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었다.

‘하나님! 정말, 왜 저에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저를 정말 목사로 부르



시고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그곳에서 사역해야 할 내가 왜 여기에 와서 이렇게 병실에 누워있어야 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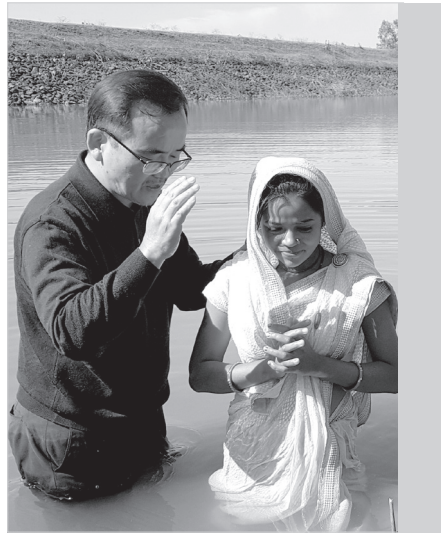
절망과 회의로 인해 울부짖으며 부르심에 대한 소명마저 흔들릴 때 쯤,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불러 주셨다.

‘내가 너를 20년 전에 부르지 아니 하였느냐? 내가 너를 20년 전에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은, 20년 전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통해 부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였고, 그로 하여금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게 만들었다.

‘주님! 그렇습니다. 20년 전에 분명히 나를 불러 주셨는데, 지금 이 작은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소명이 흔들렸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I국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치료를 중단하면 3개월 안에 죽는다.’는 의사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I국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와, 소명에 대한 불타는 확신과, I국의 영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은 그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하였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던 누군가의 말처럼, 소명을 재확인 한 이후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3개월 만에



죽을 것이라고 했던 의사들의 경고와는 달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고, I국으로 돌아온지 3년이 지났을 때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일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자 축복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통해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과 매일 하루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되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지금까지 성실하게 달려온 김바울 선교사는, I국의 무슬림들과 힌두들을 위하여 현재까지 11개의 교회를 개척하였고, 현지 지도자 훈련을 위한 신학교 교수 사역, 학교와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문맹 퇴치 센터를 통하여 500여명의 가난한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말씀으로 꿈과 용기를 주며 매일 돌봄으로 미래의 지도자로 키우고 있고, 뿐만 아니라 어린이 그림 성경을 출판하여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문맹인 어른들에게도 글자를 가르치고 있으며,



NGO단체를 통한 어린이 개발 사역, 구제 돌봄 사역 등을 통해 지역 사회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도, 그는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그분이 허락하신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다. 매 순간을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보내는 그의 고백은, 분명한 소명 앞에서도 순종하기를 주저하는 이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고 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나를 데려가시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떠서 나의 코에 호흡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내일 하루도 또 다른 마지막 날임을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잊지 못할 선교사 훈련을 마치며

● 강지은 (28기 선교사 훈련생)

나는 2년 5개월의 인도네시아에서의 선교 사역을 정리하고, 침례교단에서 주최하는 선교사 훈련을 받기 위해 국내로 귀국했다. 그런데 국내 귀국하고 3주가 지나자 중국에서 코로나 19사태가 발생했고, 코로나 19는 우리나라로 넘어와 전국적으로 급속도로 확산이 되는 시점이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내 마음 속엔 전국 곳곳에서 온 선교사 후보생들과 자녀들이 약 3개월 동안 합숙 생활을 해야 하는 선교사 훈련이 과연 시작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생겼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우려와는 달리 비록 한 주가 연기되긴 했지만 28기 장단기선교사 훈련은 보이는 상황에 끌려 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호기롭게 하지만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선교지로 들어가 초기 정착 및 언어 훈련, 사역 적응으로 마음이 바빴던 나는 선교사 훈련에 대해 특별히 마음을 드리지도 못했고, 이를 위한 기도도 많이 하지 못했기에 솔직히 큰 기대감이 없었다. 다만 주변 선교사님의 권유로 인해 당연히 받아야하기 때문에 받는 훈련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런데 훈련 시작되기 전 날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받은 문자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할렐루야! 드디어 훈련원에 들어가셨군요. 축하합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 썸 생애 중에 결코 잊지 못할 만남과 장소가 될 것입니다. 건강하시기를 그리고 자카르타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훈련이 내 생애 중에 결코 잊지 못할 훈련이 될 거라는 선배 선교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과연 이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훈련에 임하게 되었다.

침례교단 선교사 훈련은 선교에 대한 강의, 선교와 관련된 주제에 관한 토의 및 활동, 합숙하며 받는 공동체 훈련과 심리 상담 및 사역 상담의 4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WMTC 선교훈련인 만큼 훈련 프로그램이 상당히 완성도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사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선교 훈련은 조화롭게 잘 짜여진 형식적인 훈련과 비형식적인 훈련, 훈련생을 위한 체계적인 맞



층형 교육과정, 수준 높은 강의, 원장님과 부원장님을 비롯한 스태프들의 겸손하고 헌신적인 섬김에 모든 프로그램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된 강의는 선교에 대한 막연한 개념만 가지고 맨 땅에 헤딩했던 나의 짧은 선교 경험을 되돌아보게 했고, 눈먼 소경 같았던 내게 선교에 대한 눈을 활짝 열어주었다. 다양한 강의를 통해 '선교'라는 두 글자 안에 함축되어 있는 긴 역사와 다양한 선교 전략,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문화, 실제적인 사역 방법, 선교사로서의 소명과 균형 잡힌 삶 등에 대해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선교지에서 살면서 몸으로 부딪혔던 문제들에 대해 실제적인 답을 얻을 수 있었고, 2년 5개월의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지난 선교지에서의 시간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꼭 찬 시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적 정글과 같은 선교지에서 나를 최상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선임 선교사님, 동료 선교사님들, 함께 기도해 주신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기도 동역자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이 들었다.

특히 선교사로서의 길을 앞서 간 선배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에 관한 이야기는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우리 앞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 선배님들,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선배님들, 선교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만날 수 있었던 선배 선교사님들의 말씀과 삶 속에서 그분들을 이끌고 계신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다. 전 세계의 모든 잃어버린 자녀들을 죄로부터 건져 내어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앞에서 무신론자로서, 안티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던 나를 예수님께서 생명을 드려 살려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강권되어 또 다른 나와 같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싶은 열망을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지피게 되었다.

내가 훈련원에 입소할 때 가장 부담스러웠던 공동체 훈련은 선교사 훈련 중 가장 최고의 훈련이었노라고 고백하고 싶다. 공동체 훈련은 내성적인 기질에 낯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내 성향 상 결코 쉽지 않은 훈련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시고 섬세하신 분이셔서 내가 싱글로 외롭게 훈련을 받지 않

도록, 같은 숙소에 언니 같이 나를 잘 챙겨주고 인생 및 신앙 연륜이 깊은 유인란 집사님을 보내주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훈련이 힘들 거라는 나의 기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다. 서로의 다른 점을 수용하고 인내하는 동기들의 성숙한 신앙을 보고 배웠으며, 자신이 가진 다양한 은사로 공동체를 자발적으로 차고 넘치도록 섬기는 모습을 통해 많은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동기들의 섬김을 통해 나는 선교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훈련과 상담을 통해 나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말씀과 기도로 실제로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결단코 녹록치 않았다.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강의 이후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놓고 부단히 엎드렸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여 붙들고 있던 세상과 나의 고집을 회개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두터운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정결해진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며, 예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지난 11주의 시간이 훈련원 밖의 세상에선 코로나 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도리어 내겐 코로나 19로 인해 훈련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이었다. 든든한 영적 요새 속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무장된 분들의 보호를 받으며,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선교사로서 준비되는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

지금까지도 한 강사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잊혀 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이유는 선교지의 영혼을 위해서이기보다는 먼저 내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 내가 선교지로 간다고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늘 가까이 하고 싶으셔서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하나님 본심 앞에서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하는 선교사이기보다는 늘 어떤 선교사이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사랑의 종이고 싶다.

내 생애 결코 잊지 못할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선교지에서의 제 2막을 기대하며, 힘찬 발걸음으로 전진한다.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 정희선 (28기 선교사 훈련생)

세계선교훈련원에서의 삶을 돌아보며 무수히 많은 감사한 것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차근차근 정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20대 초반 신학생 때 기도하며 받은 소명과, 결혼 후 꿈을 통해 소명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남편에게 주신 소명으로 우리 부부는 28기 선교사 훈련생으로 훈련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체적인 것들은,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시는 선임선교사님 부부와 우리 부부가 함께 팀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선교지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우리 부부가 현지에서 사역하며 현지인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모습도 꿈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확신을 갖고 훈련원에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제게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도 말씀해주세요, 정말 힘든 순간에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레마의 말씀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었고, 주님께서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사도행전 13장 47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행 13:47)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저같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사실에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고,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훈련원에 들어온 후로 매일 주님과 나누는 대화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제 입술의 고백은 “감사”입니다.

레마의 말씀 뿐만 아니라 훈련 이틀째 되는 날 밤, 꿈으로 또 알게 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할 때 주께서 저를 통해 하실 일들과 제가 내려놓아야 할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 앞으로의 제 자신과 저를 통한 선교 사역의

일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훈련을 받으며 부어주신 은혜들을 모두 나누기엔 너무나도 많아서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제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스스로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강의들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시각이 아닌 객관적인 시각으로 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도,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가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나타났다는 점과 그래야 살 수 있었던 저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가정환경과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후로 나 스스로를 인정하고, 힘든 일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박의 모습을 보이는 철두철미한 자기관리, 휴식과 여유가 없는 삶으로 인해 오는 긴장감과 에너지 소진이 매우 많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성취감에서 행복을 느꼈고 만족하며 살았는데 제 몸이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제 삶의 곳곳에서 나타났는데 저는 그것을 자각하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강박증, 결벽증을 내려놓으라고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제 자신을 인정하기까지 참 힘들었습니다. 자유함을 누리고 싶고, 저로 인해 남편과 가족들,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저에게 모가 난 부분, 다듬어져야 할 부분, 훈련되어져야 할 부분도 점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삶 가운데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스스로를 올바른 시각으로 보고 자각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현재 심각한 상태이고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부부들도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살지 않나 하는 생각에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며 하나둘 풀어나가고 우리 가정의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려고 합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몰랐던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셨고, 무엇보다 우리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함께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불쌍히 여기며 평생을 노력해야 하겠지만 그 출발점이 훈련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깊고 달콤한 인격적인 교제를 갖게 하셨습니다. 매일 큐티하

는 시간,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다려집니다. 지금까지는 의무감에 했다면, 왜 이제야 이런 마음이 들까 싶을 정도로 기대가 되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정해진 시간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밀한 장소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고 기다리셨다는 것(아버지의 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은혜 위에, 하루의 일정 가운데 동행하시며 매 순간순간 말씀하시고, 주시는 영적인 감동과 감격이 너무나도 커서 감사하다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셨고,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체취케 하시며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고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며,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기대감을 갖고 훈련원에 들어왔지만 이렇게나 많은 축복들을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영적인 가족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동기분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많이 배우고 있고, 주님이 묶어주신 영적인 끈으로 우리가 하나되고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보내실 각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사역하며 각자의 말은 자리에서 서로 기도해줄 수 있는 든든한 동역자가 이렇게나 많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곳 훈련원에서의 생활이 너무 좋아서 훈련을 마치고 떠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서운하고 아쉽습니다. 아쉬운 만큼 남은 시간들 동안 모두 함께 훈련 잘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28기 동기분들, 스텝분들, 강의와 상담해주시는 교수님들,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어떤 것 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복된 선교사훈련을 WMTC에서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를 강력하게 지켜주시며 보호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심하신 손길과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두 손 들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진짜 선교사 입니까?’

● 양홍석 (28기 선교사 훈련생)

오래전 선교를 하겠다고 헌신 했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준비 했는지 되돌아보면, 여전히 노방전도마저 불편한 저의 모습을 보며 반성하게 됩니다. 아마도 마음은 있으나 돈은 없으니 어떻게 할지 몰라 어렵פות이 시간과 노력이라도 드리겠다고 선택한 길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니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릴 뿐이다.’라는 말은 일반인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선교사라면 가장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을 찾아 뿌려야 한다.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지역에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말은 해선 안 된다. 우리는 프로다.]라고 말씀하신 어떤 강사님의 힘 있는 말씀이 더 부담으로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쌓여 가면서, 정말 삶과 시간의 헌신인지 아니면 또 다른 스펙 쌓기나 가족의 지경을 넓히는 욕심인지 고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저와 가족의 과거와, 삶과, 앞으로의 선택을 맡겨 드립니다.

그렇게 결정하게 된 원동력은,

- 결코 침침하지 않은 WMTC의 커리큘럼과 원장님, 부원장님, 간사님들 헌신
- MH(멘땅에 헤딩)해도 성공할 전략적 선교 강의
- 깜빡 선교지에 와 있는 듯 한 생생한 케이스 스터디
- 하루도 빠짐없이 끓고 있는 귀리차 같은 동기 훈련생 분들의 열정
- 한손엔 출산과 양육을, 다른 손엔 공동체 음식을 하는 아름다운 손길
- 특기도 취미도 기도, 앞으나 서나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는 훈련생들의 중보
- 초미세먼지도 통과 못할 세심한 상담 덕분입니다.



특히 선교 강의 중 드러난 강사님들의 놀라운 영성과 열정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훌륭한 선교사가 되는 것은 요행이 아닙니다.’

‘관계성이 없는 사람은 선교지의 독극물입니다.’ - 김중식 목사

‘관계는 통로이자 사역 자체입니다.’

‘좋은 행동은 부지런히 관찰해서 칭찬해야 합니다.’ - 최주희 교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대한민국을 축복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이현모 교수

‘지구라는 선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 황기 목사

‘가장 효과적인 선교 전략은 복음입니다.’

‘장기 선교사와 전문인 선교사 동역을 위해선 MH(맨땅에 헤딩), BJR(배째라), 불굴의 개척정신 등 한국식 선교가 필요합니다.’ - 최원진 교수

‘천지를 창조하셨던 전능하신 손길로 나의 뇌세포를 살짝만 만져주시옵소서!’ - 이금주 선교사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게 아니라, 기도로 선교하는 겁니다.’

‘교회와 선교사는 끝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 정승룡 목사

끝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WMTC 스텝들과 훈련생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도 제자훈련과 재정보고서 과제, 사역계획서 제작 과제로 밤새우지만, 코로나도 뚫지 못한 촘촘한 이 훈련을 마치고 나면, 분명히 ‘Missio Dei(하나님의 선교)’를 보다 더 생생히 목도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시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28기 선교사 훈련생 소개 및 기도제목

● 강지은



- 파송국가 : 인도네시아
- 파송교회 : 춘천한마음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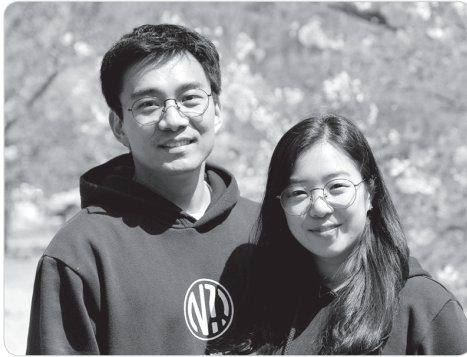
“예수께서 나와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부르셔서 2년 5개월을 현지에서 섬기다가 WMTC에서 훈련을 받고 재무장을 하여 다시 나갑니다. 저와 함께하시는 예수님께서 인도네시아에 복음을 통해 그곳의 영혼들을 변화시키시고,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세우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 기도제목

1. 성령충만함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항상 뜨겁게 사랑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선교사로 세워지도록
2.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의 임하고, 인니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3. 빨리따 두니아 신학교와 땅그랑 한마음교회에 충성된 영혼들을 보내 주시고, 복음으로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 권정훈 / 강소연



- 파송국가 : 일본
- 파송교회 : 105도 선교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요 4:21)

예수로 자립하고 재생산하는 J3의 사역! 주님은 이미 이루셨고 그 길을 따라가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 기도제목

1. 주신 마음 잊지않고 끝까지 주님 소식 전하는 선교사의 모습이 되도록
2.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진리로 예배하는 일본의 자립 공동체를 위하여
3.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도록



● 김광야 / 홍소리(은서, 예서, 지성)



- 파송국가 : K국
- 파송교회 : 우림교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마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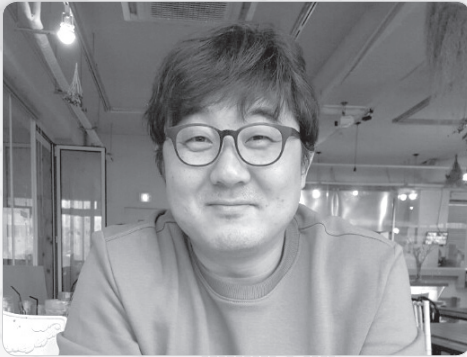
복음을 듣지 못한 곳, 복음이 필요한 영혼에게...

저희 가정을 주님의 일에 사용해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 아이들도 꼬마 선교사로 준비되어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전달자로 사용되어 지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제목

1. 겸손과 순종, 기쁨으로 우리 가정에 맡겨주실 사역 잘 감당하도록
2. 믿음의 동역자들 붙여주시고 사역 팀과 잘 연합하도록
3. 아이들이 현지에 적응 잘 하고, 복음의 도구로 자라나도록
4. 4월 18일에 셋째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아내의 건강도 잘 회복되도록

● 김민호



- 파송국가 : T국
- 파송교회 : 아름다운교회

내가 어딜 가든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WMTC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인도 하였고 앞으로 저를 인도 하실 주님만을 믿고 가려고 합니다.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생각과 지식을 내려 놓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주님의 사역에 동참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 기도제목

1. 사랑으로 섬기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2. 겸손한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3. 아버지, 형, 형수님 구원 받을 수 있도록
4. 주님이 주시는 반려자를 만날 수 있도록

● 김상현 / 정명남(단, 예아)



- 파송국가 : 튀니지
- 파송교회 : 늘사랑교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그동안 나의 신분(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에 초점을 맞춘 신앙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아름다운 덕(찬미, 탁월함)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지 수년이 지난 지금 저희 가정은 튀니지로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림과 같이(Vision) 어디서든 강력한 주님의 교회(마16:16-19)를 세우고 모든 민족 가운데 왕 되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을 기대합니다

너희는 “찬미를 선포하라!!”

■ 기도제목

1. 아버지의 마음으로 튀니지 민족을 품고 사랑 할 수 있도록
2. 현지적응과 언어습득이 잘되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도록
3. 아이들이 낯선환경에서 잘 적응할수 있도록
4.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 김성용 / 임정화



- 파송국가 : 인도네시아
- 파송교회 : 유강침례교회

“향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사 42:10)

17,5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 그 중에서도 낙도 오지 소순다 열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섬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찬송하는 꿈을 꾸며 담대하게 나아 갑니다.

■ 기도제목

1. 사역지 적응과 언어훈련에 어려움 없도록
2. 소순다열도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3. 선교자원개발 사역에 동참할 교회와 동역자들이 연결되도록
4. 한국에 남아있는 4명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간 강건히 지낼 수 있도록

● 김은택 / 정희선



- 파송국가 : 우크라이나
- 파송교회 : 가산중앙침례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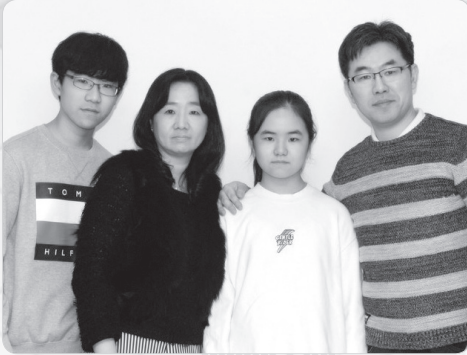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싸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요 16:20)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깨어진 가정에 대해 근심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 자리잡고 있는 정교회에 대해 근심합니다. 우리는 그 땅의 미래인 자녀들에 대해 근심합니다. 주님께서 이 근심들을 기쁨으로 바꾸어주시리라 믿습니다.

■ 기도제목

1. 우크라이나의 각 가정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2.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3. 현지적응과 언어습득을 위하여
4.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양홍석 / 김현아



- 파송국가 : 베트남
- 파송교회 : 지구촌교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2~13)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일들중 가장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할수 있을거 같지만 또 함께 하기 힘든 가족과의 화합과 하나됨으로 저희 가족은 주님의 일에 한 발자국 나아갑니다. 각자의 달란트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 기도제목

1. 주님의 인도하심을 찾아 귀 기울이며 기도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길
2. 말씀을 통한 영 분별력으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지혜로움을 갖길
3. 가족의 화목과 건강을 위해 서로 애쓰고 노력하길
4. 사역의 길을 계획하고 실행할때 전적인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 유인란



- 파송국가 : 인도네시아
- 파송교회 : 아름다운교회

오래전 부르심에 이제야 순종하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고 특별한 것도 없이 부족하기만 한 저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시는지 기쁨으로 기대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담대히 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 기도제목

1.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2.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는 지혜, 명철을 주시도록
3.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4. 주님이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건강 주시도록
5. 인도네시아 뼈당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6. 선교지에 가기 위한 준비와 정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7. 성령님과 선교지와 교회가 연합으로 하도록

● 이제 / 김빛나리(수연, 재연)



- 파송국가 : 베트남
- 파송교회 : 세움지구촌교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행 13:47)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세요. 중보 기도는 저희의 영적 능력이요, 사역의 힘입니다.

■ 기도제목

1. 날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 되도록
2.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신실하게 선교 훈련의 시간을 보내도록
3. 선교 사역을 위한 언어 훈련을 능히 감당하고, 평안의 현지사람을 만나도록
4. 선교의 사역으로 함께 동역할 교회와 중보자들이 지속하여 세워지도록

● 이지현



- 파송국가 : 인도네시아
- 파송교회 : 춘천한마음교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인도네시아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제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주님을 찬양하는 나라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 기도제목

1.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도록
2.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변의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3. 무엇을 하던지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기를
4.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 이창수 / 한경화



- 파송국가 : 미정
- 파송교회 : 늘사랑교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하였습니다. 아무도 예비하지 않은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그곳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모르지만 저희는 주님을 알았기에 주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희도 그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 기도제목

1.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저희가 있도록
2.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건강한 사역팀을 만나도록
3. 기도 · 재정적 후원자, 평안의 사람들 등의 만남의 복이 더해지기를
4. 저희 부부의 영육간, 정서적 건강을 위하여
5. 아들 · 딸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며, 이들의 삶에 주님께서 깊숙이 간섭해주시고 인도해주시도록

● 이형기 / 정형자



- 파송국가 : 일본
- 파송교회 : 미정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 8:12)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하며 영적으로 어두운 일본의 영혼들에게 예수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심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어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되며 주님의 영광의 빛이 일본땅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 기도제목

1.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늘 깨어 기도하도록
2. 일본과 일본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3. 가정과 선교사역을 위해 중보기도해주실 기도의 동역자 300명을 보내주시기를
4. 함께 사역할 선교사님 가정과 좋은 팀웍을 이룰 수 있도록
5. 가족모두 영과육이 강건하도록

정광호



- 파송국가 : 미얀마
- 파송교회 : 지구촌교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20)

상좌부불교의 종주국 같은 미얀마는 200년 전부터 미국 남침례교 최초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이 선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화율이 0.5% 미만인 종족이 대부분인 어려운 선교지입니다.

하지만 최근 민주화와 한류 열풍에 따른 한국어 배우기 및 지속적인 높은 경제성장과 교육개혁에 따른 영어 배우기와 대학진학 등의 교육열풍이 불어서 역사 이래 최고의 선교 최적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다음세대들을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인 학교와 어학당과 교회를 예비해 주신 주님께 무한 감사드리며 성령님의 뜻대로 교육선교에 최선을 다해 따라가고자 합니다.

■ 기도제목

1. 늘 말씀 안에서 성령님 임재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계획하고 행동하게 해주시길



2. 미얀마의 버마족과 복음화율이 낮은 종족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길
3. 프라미스 국제학교와 별들의 집과 로뎀연합선교원 사역의 과정을 성령님 뜻대로 계속 친히 인도해 주시길
4. 국내에 있는 자녀들이 건강하고 성령님 뜻대로 생활하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사진으로 보는
28기 훈련이야기





사진으로 보는
MK이야기





WMTC 중보기도 모임

세계선교훈련원 중보기도 모임은, 강력한 중보기도를 통해 열방을 섬기는 모임입니다. 지난 해 10월부터 시작된 이 모임은, 훈련 기간 동안 훈련에 참여하는 선교사 후보생들과 선교 훈련을 위해 기도하며, 훈련이 없을 때에도 월 1회 정기 모임을 통해 선교사들과 세계선교훈련원의 사역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귀한 사역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존 녹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 참여문의 : Tel. 042-828-3371 세계선교훈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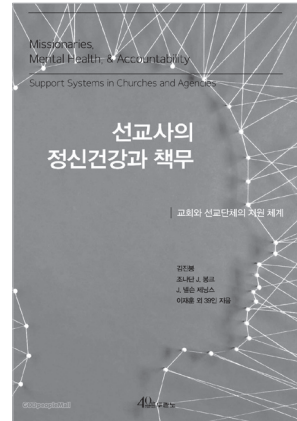
「 선교사의 정신건강과 책무 」

■ 지은이 : 김진봉, 조나단 J. 봉크, J. 넬슨 제닝스, 이재훈 저 ■ 출판사 : 두란노 ■ 발행일 : 2020. 02. 02

지상명령 완수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에게도 한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본질적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는 그동안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선교사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해 내는 것을 좋은 믿음으로 여겼다. 더불어 분노, 부부 갈등, 성(性)중독, 인간관계 등 한 개인의 정신 건강을 다루는 것은 여전히 예민한 부분이다. 물론 이것은 선교사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본서는 2019년 5월 10~14일 속초 컨싱턴스타호텔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선교사의 정신 건강에 얽힌 복잡한 문제들과 교회와 기관의 책무에 따른 15편의 사례를 담고 있다. 또한 각 사례는 현재 선교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과 그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성경적 사례와 접근 원리를 포함한다. 적절한 조기 검진만으로도 예방 할 수 있는 정신적 문제가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하여 선교사의 사역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선교사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은 선교를 건강하게 지속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영역이다.

이런 차원에서 본서는 21세기 여러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이들과 동역하는 여러 교파와 교회, 선교기관의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자료이다.



「 선교사 멤버케어 」

■ 지은이 : 켈리 오도넬 ■ 출판사 : CLC(기독교문서선교회) ■ 발행일 : 2004. 07. 30

1980년 이후 한국 교회는 자기희생을 고귀한 믿음의 실천 형태로 가르치며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했지만, 개인적인 여러 문제들과 혼란,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위험들에 대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주지 못했다. 최근 멤버케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위한 단체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선교사들의 건강한 사역을 위해선 보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본서는 추방, 테러, 폭행 등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과 더불어, 선교사 가정과 개인의 일상적인 문제들을 함께 다루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인적인 대처 방안과 파송기관과 협력기관의 적절한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목자적 돌봄'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성경적인 선교 방법을 모색하도록 돕는다.

본서를 통해 다양한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향한 관심과 체계적인 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드러나길 소망한다. 또한 이런 노력을 통해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의 삶을 드린 선교사들이 보다 더 건강하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되길 바란다.





in2mission

인투미션 선교학교 안내

1. 인투미션 선교학교란?

인투미션(in2mission)은 지역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 학교'입니다. 각 교회가 선교를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선교의 방향을 설정하고, 보다 더 실제적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선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현직 선교사 및 각계의 선교 전문가들의 다양한 강의를 통해 선교이론을 배우고, 생동감 넘치는 선교 현장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눔으로써, 헌신된 선교 일꾼들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인투미션 진행안내

과 목 명		
** 필수	* 추천	* 선택
선교의 성경적 기초/세계 선교현황	교회의 선교비전(담임 목회자)	단기 선교 여행
선교와 문화	국내 다문화 선교	이슬람 이해와 선교
선교역사	북한 선교	타종교 이해
선교참여		선교적 교회론
선교사 멤버케어/교회의 선교행정		아시아 선교
		기아/난민/구제사역

※ 과제: 선교 관련 추천도서 1권 이상 읽고 독서 감상문 제출

- 진행 : 10주 과정(평일 저녁 7:30 - 9:30, 강의 및 소그룹 토의진행)
매년 상반기, 하반기 각각 1-2회 이상 지역교회와 협의 후 실시
- 순서 : 찬양과 경배(15분, 개교회), 강의(80분), 광고 및 정리(5분), 소그룹 모임(20분, 조장 인도)

3. 수료 혜택

- 침례교 해외선교회(FMB)와 세계선교훈련원(WMTC)이 공식 인증하는 수료증 발부
 - 1년 이하의 단기 선교 시 침례교 해외선교회에 인턴선교사로 허입
 - 침례교 해외선교회 장, 단기 선교사 시취 시 1순위로 허입
- 문의 : 세계선교훈련원(WMTC) Tel. 042-828-3371



선교사훈련안내

세계선교훈련원(WMTC)은, 전문적인 선교사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단기 선교사훈련은 신입 선교사 후보생들이 인성, 타문화이해, 사역 기술 등의 훈련을 통해 사역과 삶에 균형을 갖춘 건강한 선교사가 되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며, 선교사 업그레이드 훈련은 지난 사역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국제 사회 환경과 선교 환경에 대응하여 앞으로의 사역을 계획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29기 장단기 선교사훈련(신입선교사 훈련, Missionary Pre-field training)

- 훈련기간 : 2020년 6월 2일 ~ 8월 21일(12주)
- 훈련대상 : FMB 소속 장단기 선교사 후보생, 타 단체 소속 장단기 선교사 후보생
- 훈련내용 : 공동생활, 영성과 인성, 전문상담, 타문화 이해, 선교학, 사역 기술, 선교 실제 등

- 29기 장단기 선교사 훈련 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

선교사 업그레이드 훈련(Missionary Up-grade Training)

- 훈련기간 : 2020년 10월 19일 ~ 11월 13일(4주간)
- 훈련대상 : 사역 10년차 이상 현직 선교사
- 훈련내용 : 디브리핑, 전문상담, 사역점검, 전문 강의 등

문의 | 침례교 해외선교회(02-2619-2202), 세계선교훈련원(042-828-3371)

28기 장단기선교사 훈련(신임 선교사 훈련, Missionary Pre-field Training)

지난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28기 장단기 선교사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총 23명의 신임 선교사들(부부 9, 싱글 5)이 참석하여 선교 훈련, 사역 계획 수립, 영적 무장 등을 통해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방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밝히게 비출 신임 선교사들에게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훈련을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의 : 권이현 김기태 김용국 김용복 김재희 김종식 김진대 김홍배 박영철 백승화 설 훈 손창남 이금주 이명준 이병문 이상웅
이영은 이재경 이현모 임도균 정길용 정승룡 주민호 차지혜 최주희 최원진 황권상 황 기

설교 : 김선배 김병권 김용혁 김종포 이금주 주민호 이현모 이병문 임성도 최원진 김병권

상담 : 권이현 김재희 최주희

식사 및 간식 : 박상희(새누리2) 박효정 백승화 이금주 이진희 이후선 전상만 최원진 늘사랑교회(정승룡 목사) 디딤돌교회(임성도 목사)
마중물교회(이상웅 목사) 마중물교회 성도(김원석 이지향 백혜순 박승희 유창희 우해석 박군호 허혜영 이남숙 권현희 최영미 이은영)
본월드미션 아름다운교회(이영은 목사) 주님의기쁨교회(박영철 목사) 지구촌교회(최성은 목사) 포항중앙교회(김종식 목사)
침례교해외선교회(이재경 회장)

29기 장단기 선교사 훈련(신임 선교사 훈련, Missionary Pre-field Training)

6월 2일부터 8월 21일까지 29기 장단기 선교사 훈련이 진행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소명의 첫걸음을 내딛는 신임 선교사들(17명 예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울러 훈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수고하는 강사님들과 스텝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 WMTC 새로운 스텝으로 김사랑 간사(재정담당)와 하충만 간사(시설, 동원담당)가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아낌없는 기도와 손길 감사드립니다!

♡2019년 12월 ~ 2020년 4월 기준
훈련원을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교회, 단체후원

광주중앙 공선 품꾸는 늘사랑 다온 대전대흥 대전중앙 대청 더지구촌 마중물 목양 밀밭 범일 부산 부여중앙 새누리2 새밭 새살 생수 서부 서울제일
성림 세종선한목사 송탄중앙 수원중앙 신시내티글로리 신흥 아름다운교회 여의도 연산 예수나눔 예인 우림 울산성일 유성중앙 전주 전주새소망
제자 좋은나무 주님의기쁨 중문 중앙 지구촌 천복제일 천안비전 청주사랑의 총남 천안 큰빛 포도나무 포항중앙 하늘비전 한밭제일 행복 행복한
형제 휴스턴서울 기독교한국침례회 기독교한국침례회해외선교회 전국여성선교연합회

■ 개인후원

강미자 강복남 강예은 권미경 구상미 구정희 김광현 김경희 김기영 김동현 김미미 김미라 김민숙 김선월 김순이 김순필 김순희 김은숙 김은실
김정식 김지영 김진남 김진옥 김준규 김준화 김필동 김현숙 김혜진 김희연 김진순 정신형 나광선 남궁래은 남궁소 노영희 노용식 류시화 마송희
문미숙 박경희 박선영 박수정 박이예 박인화 박영수 박영옥 박찬숙 박향열 배말순 백만수 석정미 손광옥 손금란 송경애 신문자 신영임 신영주
신유정 안병례 안은주 안해경 안희열 엄은경 엄하영 우도환 유영철 윤경태 윤상원 윤정자 윤희정 이강용 이경숙 이경환 이경희 이금주 이미영
이병문 이병철 이분희 이선희 이수동 이수진 이영재 이예슬 이옥구 이유섭 이종춘 이춘자 이치형 이현모 이홍관 이희수 여경미 위강철 임춘옥
임혜정 장성운 장영수 장혜정 전병임 전상섭 전창희 정갑순 정삼모 정성현 정 승 정원근 정은숙 정재교 정주애 정창교 조안심 조희영 주우진
주윤정 진 용 진향숙 최 경 최경자 최경희 최근자 최명국 최명숙 최상규 최원진 최영미 최자영 최한숙 한숙자 황권상 한승이 홍재우 홍정민
홍석진 WENGHANNAHSUNYOUNG

세계선교훈련원 기도제목

1. 훈련원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2. 29기 장단기 선교사 훈련과 선교사 업그레이드 훈련(MUT)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3. 후원교회 및 단체와 개인 후원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도록
4.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도록